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7 1982년 12월 1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December 16, 1982

DEC 1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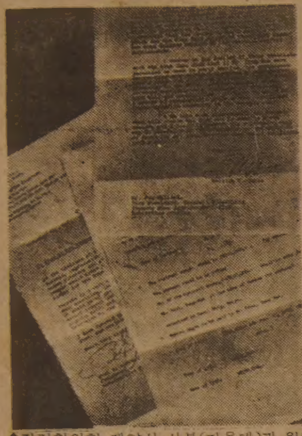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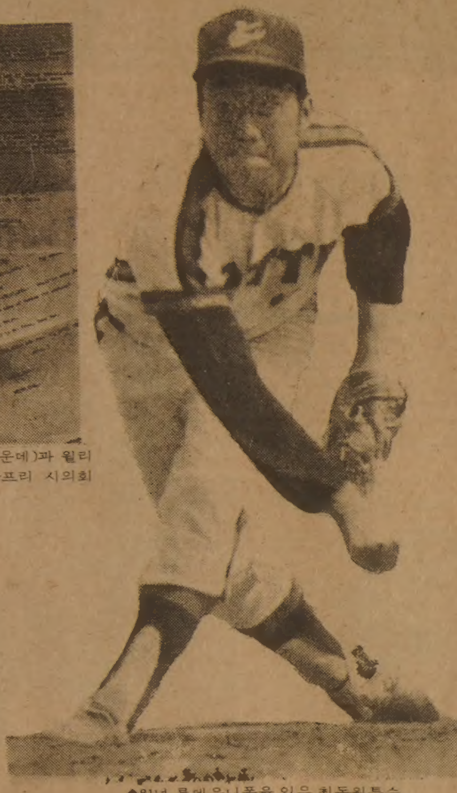
최동원 투수·블루제이스 43만달러에 잠정합의

병역면제 여부만 남아있어

교민들 청원서 서명운동전개



◆잠정합의한 계약서 사본(가운데)과 윌리암·데이비스 온주수상및 폴·갓프리 시의회의장의 최동원유치 협조문.



◆81년 롯데유니폼을 입은 최동원투수

「제2의 바렌주엘라」를 꿈꾸는 한국의 국가대표 야구선수 최동원(24)의 토론토 진출여부는 이제 한국정부당국의 손에 달려있다.

북미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소속의 토론토·블루제이스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최동원투수는 지난 10월 블루제이스와 3년간 미화 43만달러의 새 계약에 잠정합의했으나, 병역문제로 아직 정식서명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본사가 입수한 잠정합의서에 의하면 최선수는 연봉으로 83년도에 6만달러, 84년에 11만달러, 85년에 16만달러외에 입단조건으로 1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1차 계약에 말썽이 되었던 보너스조건 「싸이영」상(프로야구 최고 투수에게 주는 상)대신 10승을 넘기면 2만5천달러가 보너스로 주어진다.

지난 11일 한국체육부는 문교부 특기자선발위원회와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전국가대표 김용남, 이상윤(해태), 박용성(롯데) 선수에 대한 병역문제를 허가하고, 앞으로 국내프로팀에 진출하는 대표선수에게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최동원선수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진출하는 케이스의 병역면제 허가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병역문제가 걸리자 블루제이스구안측은 윌리암·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 폴·갓프리 메트로·토론토 외회의장등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야구광인 데이비스수상과 갓프리의장은 토론토 교민대표들과의 접촉을 벌이는등 최동원을 토론토로 유치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연락을 받은 홍중표(메트로경찰불평처리위원)씨는 조한철박사, 박인순한인회장등 교민인사들에게 요청, 한국정부에 보내는 청원서의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다.

폴·갓프리의장측근은 13일 "최동원선수의 토론토진출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중표씨는 15일 "교민인사들에게 청원서의 서명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작업은 공개할 성질도 아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최동원의 병역면제문제에 대해 체육부관리는 11일 "선수들의 해외진출은 일단 제한하자는 방침을 세웠으나, 재심을 요청해오면 다시 거론키로 했다"고 말해 교민들의 청원의 뜻이 전해지면 한국정부가 최선수의 병역문제를 허락할 가능성이 짙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프로야구구단회의에서 돌아온 블루제이스 엘리옷·왈리 인사부장은 15일 "최동원측과 아직 정식서명을 안했으므로 새 계약내용은 밝힐 수 없다. 병역문제가 걸린것은 알고 있으나 지난 81년에 서명한 1차계약서가 아직 유효하므로 최선수는 우리의 동의없이 한국프로야구에서도 활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동원의 블루제이스진출의 장애는 병역문제보다 실은 한국프로야구단의 격렬한 반대때문 이라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동원같은 인기선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올해 창설된 한국프로야구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반대하는 이유이다.

한국병역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병역이 면제되려면 「국가가 지정한 전문분야」에서 2년8개월(일반병역기간)간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다같이 적용되어야하며, 또한 한국프로야구리그는 미국프로야구선수공급과 훈련등에 협력키로 약속했으므로 공식적으로 최동원선수의 블루제이스 진출에 반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인물 최동원

강속구와 컨트롤이 일품

미국코취 "무쇠팔뚝"이라 극찬

경남고교를 거쳐 연세대를 졸업한 최동원투수는 한국야구의 대들보로 대학1년때인 77년 이태리 세계야구선수권대회때부터 대활약, 프로야구스카웃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 했다.

연세대 재학시절 현재 한국프로야구의 최고투수이며 미국 밀워키·브루워스에서 활약했던 박철순투수(OB베어스)와 불협화음으로 6개월간 구장을 떠나는등 말썽이 뒤따르기도 했으나 그의 능력만은 한국 최고의 투수로 평가 받아왔다. 동양인으로 강속구(시속 91마일)를 자랑하며 체인지, 오브, 페이스(볼의 배합)에도 능해 언제나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히 스트라익과 볼을 배합하는 선수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한국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던 미국대학 야구팀의 봅·스미스감독은 "당장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무쇠팔뚝을 가진 투수"라고 극찬했다.

매니저역활을 하는 부친 최윤식씨가 스카웃등에 항상 참견, 인기반감의 역활을 하기도 하나 최선수의 성장에 절대적역활을 했다. 최선수가 블루제이스의 스카웃대상이 된것은 지난 81년 에드몬톤의 세계야구선수권대회였다. 강적 캐나다팀을 거의 퍼펙트게임(1안타 무실점)에 가깝게 셧 아웃(1:0)시키는 것을 본 블루제이스 스카웃터 봅·모간은 구단측에 추천, 적극교섭에 나섰다.

폴·갓프리 재선

5대째 메트로의장 연임

폴·갓프리씨는 14일 절대다수로 메트로·토론토시의장에 선출됨으로써 앞으로 3년간 더 메트로를 다스리게 됐다.

총39표중 그의 유일한 도전자였던 시의원 리차드·길버트씨가 차지한 6표외에 33표를 차지한 갓프리씨는 이로써 5대째 시의장직을 연임한다.

갓프리의장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각료들과 너무 친근하다는 점을 그의 경쟁자인 존·스웰 시의원, 조앤·캠벨 시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아온데 대해 이날 주정부의 고유인사와의 친분이 시정에 이익이 됐으면 됐지 해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가 있기전 일부 시의회의원들은 의장선거가 직접선거가 아닌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14일 메트로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폴·갓프리의장. 앞으로 3년간 봉직케될 그는 5대째 연임했다

◆무난히 재선된 메트로 시의장 폴·갓프리.

F—20 전투기 한국과 판매협상

(워싱톤 14일=연합)미행정부는 60내지 80대의 F-20전투기를 한국에 팔기위해 한국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간지인 「항공·우주기술」지가 14일 보도했다.

F-20안 노드롭(Northrop)사가 개발한 F-5G"타이거샤"의 구형이다.

레이건행정부는 F-20전투기가 작동및 보수면에서 F-16보다 쉽고 성능면에서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아시아및 중동에 F-20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슐츠국무 서울방문

(워싱톤14일=연합)조지·슐츠 미국무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일본·한국·중공등 극동을 순방하기 위해 1월27일 워싱톤을 떠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에 의하면 슐츠 국무장관은 첫방문지인 도쿄에서 2일간 머물면서·나까소네 신임수상등 일본의 정계지도자들과 만난 후 서울로 향한다.

슐츠 장관은 서울에서 고위 정부관리들과 만나 한·미안보협력을 포함, 양국간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의하며, 또한 마지막 기착지인 북경에서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로 야기된 미·중공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온」주 이혼법 개정 검토중

가정에서 기여한 여성배우자 보호위해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기여하는 배우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온타리오주의 가정법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로이·맥미트리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이 14일 의회에서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밥·뢰 온타리오주 신민당 당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맥미트리장관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이 가정법을 검토, 주민의 의견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의 가정법은 5년전 개정됐었다.

밥·뢰 신민당 당수는, 이날 현재의 가정법이 가족자산과 비가족자산(Family Assets and Non-Family Assets)을 애매하게 구별시켜 놓아 여성들이 불리하도록 해놓았다고 말하고, 맥미트리 장관이 이를 시정시킬 용의고 없느냐고 물었었다.

현재 가정법에 따르면, 가족의 자산은 대개 부부가 반반씩 나누는 반면, 기업의자산은비가족자산으로 취급 그 기업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토록 돼있다.

맥미트리장관은 "온타리오법 개정위원회가 이미 결혼후 취득된 가족자산과 사업자산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내 법률로 발효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는 결혼후 취득한 모든 자산은 가족자산과 사업자산의 구별없이 모두 배우자가 반반씩 나누어 갖게 될 확률이 크다.

미국사상 최대 현금강도

복면무장 2인조 8백만달러 훔쳐

(뉴욕)스키마스크를 착용하고, 샷건으로 무장한 강도 2명이 브롱스의 한 방탄차회사 금고실 천장을 뚫고 침입, 8백만달러로 추산되는 현금을 갖고 도주한 미국사상 최대의 강도사건이 12일밤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12일 하오11시15분께 「센트리·아머드카·쿠리어」회사의 금고실로 쇠지레를 사용해 침입한 범인들은 경비원의 손을 묶은 후, 50달러와 1백달러짜리 지폐 묶음들을 털어 달아났는데, 회사직원들이 13일 상오 출근한 현장에서 묶여있는 경비원을 비로소 발견했다.

당초 1백만달러로 추정되었던 피해액은 회사측보안책임자 잭·제닝스가 8백만달러로 재추산했다.

지금까지의 미국내 강도사건중에선 지난 78년 케네디공항의 루프트한자항공 적하장에서 현금과 보석등 580만달러를 강탈당한것이 최고의 액수였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반지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사무실
410 DUNDAS ST. E.
☎: 961-2417
(12월20일부터)
537-3171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이번 X－mas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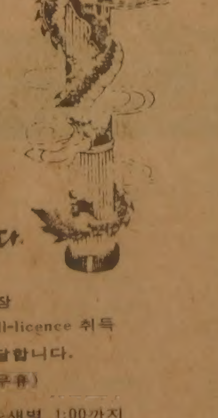
◇품 목
● 프랑스, 이태리산 양품 입점
● 한국토산품
● 인형(유리케이스 포함)
● 크리스마스 카드·신년카드등
● 테스트 초이스 커피
● 한약, 비타민, 녹용, 우황청심환 (동인당), 웅담(카나다산 진품)등
◈ 고국의 부모, 형제, 친지의 정성어린 선물은 여러분의 단골 미도파에서….
◈ 카나디안들을 위한, 한국미가 가득찬 토산물 역시 미도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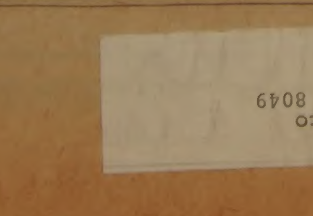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TORONTO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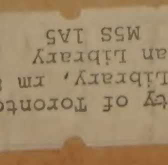
〈중국 홍콩식요리 전문 레스토랑〉
Rose Garden Restaurant

짜 장 면	$ 4.50
간짜장면	$ 6.00
짬 뽕	$ 5.00
울 면	$ 5.00
잡 탕 밥	$ 7.00
비 빔 밥	$ 5.00
해 삼 탕	$ 13.00

한국인 입에 맞게
한국식
중화요리를 봉사합니다.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656-0456
654-6609
대표 유 창 준
538 St. Clair Ave. (Vaughan × St, Clair)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퀘백주 한때 마비

◆하이드로발전소 정전으로 14일 몬트리얼시의 지하철이 올·스탑리자버스로 귀가하기 위해 몰린 승객들과 고장난 신호등으로 거리가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

◆퀘벡 하이드로발전소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기 위해 손가락을 세우고 섰는 하이드로 직원들. 14일 하오 수시간동안의 정전사태로 소방관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에 진땀을 흘렸다.

정전으로 일대혼란… 발전소 폭발사고 때문

(몬트리얼)퀘벡시 부근의 하이드로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14일 오후 수시간동안 약 6백만 퀘벡주민이 영하의 기온에서 히팅과 전기없이 떨며 지냈다.

대부분의 퀘벡주 각시의 직장들은 이날 일찍 휴무했으며 몬트리얼 시내의 지하철은 이날 하오 1시반경부터 4시반까지 운행정지했고 소방관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에 바빴다. 지하철이 막히자 버스로 몰린 승객들과 신호등의 고장으로 교통은 더욱 혼잡했으며 철물점들은 플래쉬라잇, 양초, 석유난로등을 팔기에 바빴다.

이날 사고는 동부 캐나다와 미국 북동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퀘벡시 부근 생·장·크리소스톰 발전소의 변압기가 폭발, 화재가 발생한 데 기인한다.

이날 하오 1시22분에 시작된 정전은 퀘벡주 대부분의 지역을 마비시켰으며 이 정전은 75년8월 주 전체를 마비시킨 사건이후 최대규모였고 하이드로 복구작업은 퀘벡시티가 3시15분 전기가 들어온데 이어 지역별로 회복됐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TTC요금 새해 크게 올라

현금은 75₵에서 85₵로 13% 인상

신년초부터 TTC요금이 크게 올라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TTC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낼 경우 1장에 75센트 하던 TTC요금이 13% 인상, 85센트가 되며, 8개에 5달러하던 성인용 토큰및 티켓가격이 6개에 4달러로 6.7% 인상된다.

이외에도 ▲무한정 탈 수 있는 월회수권인 메트로패스(Metropass)가 $32.50에서 6.9% 오른 $34.75로, ▲학생 및 노인용 티켓값이 8개에 $2.50에서 6개에 $2로, ▲어린이용이 5개에 $1에서 7개에 $1.50로 각각 인상되었다.

TTC 총책임자 알프·사비지씨는 「당초에는 내년도 TTC요금을 평균 5.8% 인상하려 했으나 노무비가 8%~10% 올랐고, 연료비는 무려 15% 정도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고조

캐나다 자체헌법 공포이후

캐나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4월 캐나다 자체헌법이 공포된 이후 크게 고조됐음이 14일 발표된 갤럽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67%가 캐나다의 지역간 마찰은 언젠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 4월 헌법공포전에 비해 10%가 높은 숫자이다.

특히 서부 대평원(The Prairie)지역 주민의 78%, 온타리오주민의 69%가 캐나다의 앞날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여론조사는 1,066명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었다.

연방정부 연금 성탄전 도착

메트로·토론토의 20만명을 비롯한 온타리오주 전체의 80만명의 정부보조금 수혜자들은 연방정부로 부터 12월분 연금을 크리스마스전에 받게 된다.

연방정부의 보건·사회부 직원은 14일 연금 수표가 16일이나 17일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교민동정

◆공영희 (이대동창회 총무)=노스·욕 교육위원회의 복합문화 자문위원으로 선출됐다.

복합문화자문위원직은 주로 각 에트닉그룹의 교육관계 업무를 담당하며, 주 3일 일하는 유급직이다.

실내장식을 전공한 공여사는 노스·욕 뿐 아니라 전체 토론토의 자녀 교육에 문제를 가진 학보모들의 상담을 환영한다고.

연락처는 225—4661(ex. 298)

Multicyutural Unit의 Mrs. 윤

85년엔 교민 설계의 「포니」등장?

하기현씨의 작품 좋은 반응얻어

85년쯤에는 토론토교민이 디자인한 「포니」자동차를 캐나다땅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더·에릭슨건축설계사무소(Arthur Erickson Architects)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하현기씨(45세)가 지난 10월 귀국, 자신이 직접 설계한 「포니」자동차 모델을 현대자동차에 제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씨는 자신의 설계가 현대측으로 부터 "감동적(Impressive)"하다는 평을 얻었다면서, 「모델하나 개발하는데 4~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의 설계 아이디어가 85년에 나오는 신모델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건축설계사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하씨가 자동차 설계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68년경, 70년도에 이민온 그는, 한국에서 「포니」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77년도에 귀국, 장차 북미주에 「포니」가 진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수출용으로는 그 당시의 「포니」 디자인이 세계시장에 내놓기에는 미비한 것을 느끼고 연구를 거듭, 1차연구자료를 78년도에 현대에 제출하여 한국의 "꾸밈"이라는 종합예술지에 수록되었다」고 그는 전했다.

건축설계외에 실내및 공업디자인에도 흥미가 많은 하씨는 5억달러짜리 사우디공군사관학교 건물설계팀의 설계책임자(Project Resigner)이기도 하다.

건축설계면에서 캐나다 최고봉을 이룬 토이롬슨·홀 설계로 널리 알려진 아더·에릭슨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정순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한 해를 보내면서

석 광 옥(불광사 주지)

◆석광옥 스님.

12월은 또 어김없이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가 어느새 하루가 되고,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 한달이 되며, 한달 두달이 흘러 문득 한해가 되고, 한해 두해가 바뀌어 어느덧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시간은 끝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사이 인생은 수많은 사연을 역사 속에 담아가며 과거에 띄워보낸다. 이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하는가.

무한한 공간은 창망하기만 하고, 영원한 시간이 유구하기만 한데 이 창망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 속에 하나의 티끌같은 인생은 났다가는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어감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공간과, 지금 내가 포착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값있게 살려 최대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비중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있는 이 지점은 널리 시방(十方)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지금 내가 쉬는 숨결은 멀리 삼세(三世)와 통해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느 때나 마치 한가지이겠지만 특히 세모를 당하게 되면 현실에 성실한 생활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물결치고, 또한 앞으로는 오직 현실이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불의 성불(成佛)도 납월8일의 새벽이라는 짧은 현실이 결정지은 것이며, 서산스님의 오도(悟道)는 낮닭울음의 순간이 끝낸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백억광년의 아득한 공간도 이제 떼어놓는 한 발자국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항하사겁의 머나먼 시간도 일초일분의 현재라는 이 시점이 쌓이고 모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인(因)은 먼 인의 과(果)가 되고 먼 인은 그보다 더 멀고 먼 인의 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흰눈 한송이는 공중에서 떨어지고, 공중이란 우주의 어느 한쪽이며, 눈은 수증기가 얼어서 뭉쳐진 것이요, 수증기는 지구에 있는 수분에서 생겨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눈 한송이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것이 어찌 하나인들 우연히 있을 수 있으며, 무질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우주 창조의 엄연한 인과와 연쇄적관계가 털끝만큼의 이탈도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 있고,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달관된 눈으로 볼때 봄을 기뻐할 까닭도 없는 것이며, 겨울을 슬퍼할 까닭도 없는 것이다. 떨어지는 나뭇잎, 쓰러지는 풀 한포기라도 모두가 제가 해야될 직분을 완전히 마치고, 조용히 입적(入寂)의 안식에 들어가는 인과법칙이기 때문이다.

계절이 한바퀴 돌고, 그 사이 지구도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또 새로운 한 계절 한 해를 돌려고 한다.

한해가 저무는 세모, 그것은 한해의 막이 내리는 것만이 아니다. 새해로 이어지는 마루터이고, 먼 미래를 쌓아 올라가는 한 도막이다.그런데도 세모의 아쉬움은 웬일일까?

역시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서기 때문일까?

이래서 저무는 한해는 적적해서 좋고, 밝아오는 새해를 내다보아 좋다.

▲구조작업—침몰되는 타이완의 오징어잡이 선박으로부터 한 선원이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고있다. 이선박은 12일 뉴질랜드의 웰링턴 앞바다에서 난파당했는데 헬리콥터와 함재정이 동원되어 선원16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웰링턴, 뉴질랜드—AP〉

스위스에 回春病院 20년 젊어질수 있다

주사몇대 맞으면 料力넘쳐 黑山羊 뱃속새끼가 主成分

주사몇대만 맞으면 정력이 샘솟고 장수하며 약20년은 젊어지는 신비의 의술을 베푸는 병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청춘의 샘」으로 불리고 있는 스위스의 라·프레리병원이 바로 그것.

찰리·채플린, 샤를·드골, 교황 비오12세, 드와이트·아이젠하워, 콘라트·아데나워, 서머시트·몸등 세상의 내노라하는 유명한 인사들이 다 이병원의 신세를 졌다.

이들이 이 병원의 특수요법때문에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나 모두 장수했고 그중 몇명은 90대후반까지 수를 누렸다.

병원비가 워낙 비싸 세계를 주름잡는 부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주로 가명으로 이병원을 찾고있지만 병원은 늘 젊어지고자하는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한번 신비의 의술혜택을 받으려면 보통수개월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

그러나 특별환자들에게는 인편으로 치료에 쓰이는 혈청을 보내기도 하고 비오12세와 드골, 아데나워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장거리출장을 가기도 했다.

라·프레리병원은 50년전 독일 프레데릭3세황제의 서출손자인 마을·니한스교수에 의해 건립된 이래 6만명의 환자들에게 회춘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회춘의 비법은 특수사육된 흑산양의 뱃속에 있는 어린새끼의 세포를 주사하는것.

이 주사몇대만 맞으면 정력이 강해지며 장수한다는 이 병원의사들이 주장대로 91세까지 수를 누린 모옴은 생전에 이병원의 주사덕분에 자신이 20년을 더 산셈이라고 말하곤했다.

이 병원에서 1주동안 치료를 받으면 5~15년간 약효가 지속된다는데 비용은 약5천달러(약4백만원).

지난10월까지 이 병원을 운영했던 볼프드·토웰박사는 환자의 80%가 치료결과에 만족해서 돌아가 약효가 떨어질때쯤 다시와서 효능촉진제를 맞고간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심장이식전문의 크리스찬·버나드박사도 이병원의 신세를 진 인물. 치료결과에 크게 만족한 그는 현재 이 병원의 과학고문역을 맡고있다.

라·프레리병원의 창시자인 니한스박사는 생전에 많은 부유층 인사와 저명인물들을 치료, 명성이 높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못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점차 그의 「세포요법」에 대한 의학계의 견해가 바뀌고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협신기도원 개원4주년 연말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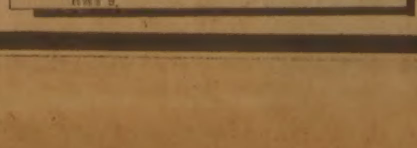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복이 각 교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시카고 미현교회에서 시무하시며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신 조인택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하고자 하오니 시내 각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사 : 조인택 목사
약력 : 총회 신학대학졸업
서울 신학대학교강사 7년
수도 성경학교강사 11년
서울 남산교회시무 14년
청계산기도원 관계
현 시카고 미현교회시무 중

일자 : 1982년12월27일(월) 오후5시~30일(목) 낮12시
장소 : 협신기도원
연락처 : 245—1687

준비물 : 성경, 찬송, 슬리핑, 백, 담요, 세면도구등 식사제공(금식은 자유)

주최 : 협신기도원
후원 : 협신선교협회



밍크자켓 $1499.00 밍크목도리 $125.00 여우털칼라 $125.00

진주(眞珠) 목거리
특별할인봉사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피에르가르뎅 * 지반시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健康의 지름길 — 가까운 주변서 찾자

產前·產後 영양이 아기腦에 큰 영향

腦細胞 주체는 단백질·脂質 활동엔 그루타민酸 꼭필요

뇌를 좋게하는 약이 있다면, 날개가 돋힌듯 팔릴것이다.

머리가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뇌에 없어서는 안되는 영양물질이 몇가지 확인되어 있다. 특히 3세까지의 아기에게는, 어머니가 영양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아기가 태내에 있을때부터 영양보급이 시작돼야 한다.

먼저 임신중의 주의가 필요하다. 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보급해줘야한다. 뇌의 주체인 신경세포의 주체는 단백질과 지질이다. 단백질은 계란·우유·육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지질은 그러한 식품 이외에도 버터·베이콘·육류의 지방분·유당·콩류·계란의 노른자위에 많다.

출산후에는 그루타민산이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다. 뇌에는 그루타민산이 압도적으로 많아 집중되어 있다. 그루타민산의 작용은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머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루타민산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지능지수가 올가간다는 보고도 있으나, 그정도까지 유효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나 뇌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영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루타민산도 식품에 함유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콩류·쇠고기·치즈·빵·깨·참치등에 많다고 한다.

여기서 혼돈해선 안될 점은, 화학조미료인 「그루타민산 소다」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루타민산 소다를 다량 섭취하면 도리어 해롭다는 데이타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루타민산은 뇌속에서 「감마·아미노낙산」과 「감마·아미노·베타·하이드록시낙산」이라는 물질로 변한다. 후자는 간질병 치료제로도 쓰이는 것으로서,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 한편 「감마·아미노낙산」은 반대로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니, 그 두가지가 서로 보완하여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아기의 산전산후에 이상과 같은 영양작전이 소중한 노릇임에 틀림없으며, 한편 해로운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념하는 노릇도 중요하다. 아기가 태내에 있을때 술·담배를 한다든지, X레이를 지나치게 쬔다든지, 혹은 산소부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는 본래 식물식을했다. 현존하는 원숭이도 식물과 과실을 먹으며, 예외적으로 침팬지가 육식하는 장면이 관찰되는 정도다.

원숭이와 사람은 어느쪽이 현명한지 말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사람이 현명한 원인으로서 큰 뇌를 지적할 수있다. 뇌의 용적은 침팬지가 약4백cc, 고릴라가 4백50~6백cc인데, 사람은 1천3백~1천5백cc나 된다.

북경원인의 뇌도 1천cc정도였으니, 원숭이에서 사람처럼 진화했을 때, 이미 뇌는 유인원의 곱절이나 돼있었다.

북경원인보다도 오랜최고의 인류는 어떠했을까. 현재 4백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라로피택스」라는 아프리카원인이 사람과 원숭이와의 중간을 잇는 동물인데, 이원인의 뇌용적은 4백50~5백30cc정도. 유인원과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오스트라로피택스」에서 인류까지의 진화 과정에서 큰 뇌가 획득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 무엇이 사람의 뇌를 크게 했을까.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의 재미나는 설은 「육식이 사람의 뇌를 이처럼 크게 했다」는 주장이다.

육식이 사람의 뇌를 크게 했다는 이유로서 영국의 「너트필드비교의학연구소」의 클로포드 생화학부장은 이렇게 설명하고있다.

『우리의 뇌와 척수의 50%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산 없이는 뇌의 정상적인 발육은 불가능하다. 지방산은 식물, 특히 식물의 씨앗에 함유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 그것만으로는 단순한 형태의 것밖에 얻어지지 않는다. 육식동물은 한차례의 식사로서, 초식동물이 여러해동안 저축한 복잡한 지방산을 섭취하게 된다』

아기는 육식을 못하지만 사람의 모유에는 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話題뿌린 女性經營者 「커닝햄」은 말한다

女性이 職場서 昇進했을때 能力은 인정하려하지않고

메리·커닝햄(31). 벤딕사에 사표를 낸후 이회사 에이지사장과 결혼식을 올려 더많은 지선을 모은 그녀는 지금 조셉·시그램·앤드·손즈사의 기획담당 부사장으로 부임, 또다시 놀라운 경영솜씨를 발휘하고있다. 최근 U.S. 뉴스·월드·리포트사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그녀가 여성경영자에게 들려주는 성공비결을 발췌해본다.

▲2년전 벤딕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회사 사장과의 로맨스에대한 소문때문에 어쩔수없이 사표를 낸것으로 아는데, 이 경험으로보아 오늘날 여성들이 비즈니스계에서 직면한 문제는 어떤것으로 보는가?

—크게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로 비즈니스계에서 여성들이 겪는 독특한 골치거리는 성적학대에서 오는 문제들이다. 보통 성적학대라면 직장에서 여성에대해 치근대는것을 말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경험한 성적학대 유형은 훨씬 더 피해가 크고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여성이 쌓아올린 직장에서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한여성이 여지껏 쌓아올린 업적을 마치 사장이나 중역진과의 성적관계로 얻은 것처럼 소문을 퍼트리는 것이야말로 자주 볼수있는 성적학대이다.

▲두번째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뉴스매체가 여성들이 비즈니스계에서 이룩한 업적이나 지위를 다루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뉴스매체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경향을 여성경영자들은 잘 알아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벤딕스사의 부사장이 여자일 경우 그녀를 소개할때 전 체이스·맨하탄뱅크의 최연소 재무담당자중의 하나였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우등졸업생이었다고 보도하기 보다는, 「금발의 푸른 눈의 미모의 부사장」이라고 낮추어 말하려고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직 여성들이 직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에서 여성편집인의 수는 전체의 5%밖에 안된다는 사실로도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진출이 빠른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업종은 옛날부터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있다. 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는 은행입사로부터 커리어를 쌓았다. 은행은 아마도 여성들이 더 잘해내는 직종일 것이다. 고객관계에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태도가 필요하기때문.

▲여성들이 직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성들은 남자건 여자건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복장, 화술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일관성있고 공정한 판단력을 가져야한다.

▲다른 여성들을 자기 분야로 끌어들여 밀어주는 일을 직접하고 있는가?

—물론이다. 일차적으로 2년전 내가 겪은 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지난번 벤딕스사에서 일어난 소문을 뉴스미디어가 떠들어 댔지만 난 무시한채 일을 계속했다. 물론 그 회사에서 나는 마음대로 일하기가 어려워졌고, 우리 회사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후 나의 사직은 세가지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후에 알았다. 첫째는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지위에 오름으로써 나에대한 태도가 편견적이었음을 알렸다는것, 둘째는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여성동등성을 인식시켰던 점, 셋째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나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격려하고 상담하는 일이다.

▲지금은 남편이 된 벤딕사의 사장 윌리엄·에이지씨와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있는 메리·커닝햄.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1>

출발 ⑫

“부탁 거절하면 누구도 살려둘수 없다”

탁자는 검은 색으로 먼지 하나 없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폭이 넓은 고전풍의 의자 12개가 서로 마주 보며 놓여있었다. 탁자를 길게 바라볼 수있는 그 양옆에도 의자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상석이라고 할수있는 그 두개의 자리중 그와 가까운쪽에 있는 탁자위에는 파일이 하나 놓여있었다. 그 옆에는 담배 케이스와 재떨이도 준비되어있었다. 길게 마주 보이는 자리 앞에도 담배 케이스와 재떨이는 있었다.

그는 자기가 앉아야할 자리를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래서 파일이 놓여있는 곳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내고 앉았다. 그제서야 그는 맞은편 벽에 문이 하나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10분동안 앉아있었다.

그가 지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맞은편에 보이는 문이 열리면서 한 사내가 들어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내는 병색이 완연한 골골하는 소리로 말하면서 그와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한 주먹에 으스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조그만 늙은 사내였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있어서 얼굴 모습을 정확히 알아 볼수는 없었지만 반백에 얼굴 근육이 모두 풀려있는것으로 보아 매우 늙은 사내라는 것을 알수있었다. 거기다 몹시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다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있었기때문에 그 모습이 퍽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마른 손이 담배 케이스에서 시가를 꺼내 불을 당기는 정중 그는 가만히 지켜 보았다. 사내는 연기를 내뿜고 나서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은 없었읍니까?』

그는 대답하지않고 상대를 바라보기만했다.

『우리 애들이 무례한 짓을 했다던가…』

『쓸데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사람부터 내놓으시오!』

그는 노기어린 소리로 말했다.

검은 안경의 늙은이는 손을 흔들었다.

『그건 곤란해요. 우리부탁을 들어주기 전에는 곤란해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할까요?』

『여자를 내놓기전에는 어떠한 부탁도 들어줄수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협조할수 없어요!』

『선생,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해서 흥분을 빠져나가려고 했오.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잡아둔거요. 우리는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는것을 용서할 수없어요.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면 누구도 살려둘 수없어요. 잘 아실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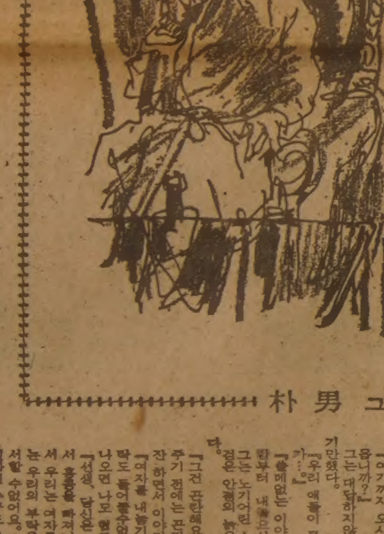
그는 입술을 깨물며 조그만 늙은이를 노려보았다.

『여자는 물론 당신도 죽을거요. 선생은 쓸데없는 고집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지는 않으시겠지.』

창은 케이스에서 시가를 하나 집어들었다.

『당신이 두목이요?』

『그런건 선생이 아실 필요없어요. 이자리에서는 내가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나왔다는것만 알아두시오.』



朴男 그림

레논 死亡 2年

아직도 뉴욕 다코마 아파트 7層에 살아있는것처럼…

▲요꼬와 숀. 요꼬는 이제 50에 들어서고 숀은 7살이 되었다.

존·레논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레논은 뉴욕 다코다아파트 7층에 살아있는 것 같다.

어느하루도 레논의 팬이 아파트정문앞에 서있지않은 날이 없으며, 지난10월9일에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 요꼬는 이들에게 케익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레논이 사망한 12월8일에는 더 많은 애도팬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었다.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모두 이렇게 느끼겠지요. 마치 삶의 목적을 잃은것같은 느낌이예요.

『그이는 저 위에 있다. 나도 그이와 함께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게 하는것은 숀입니다. 나마저 가면 그아이는 고아가 되죠. 숀과 나를 위해서 나만이라도 남아 숀을 보살펴야합니다』

숀은 다른 7살짜리 아이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환경속에서 살고있다.

숀의 놀이친구는 그의 보디가드들, 유모그라고 맥시라는 7살짜리 이웃소년이다.

숀에게는 또다른 동갑친구가 있었으나, 레논의 롱아일란드저택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진것을 기화로 그 부모가 요꼬에게 1백만달러소송을 제기, 그 동갑친구와는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다.

숀이 가깝게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은 대부인 가수 엘톤·존.

2학년인 숀은 맨하탄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있지만, 가끔 친구들로부터 「너는 아버지가 없지」하는 놀림을 받곤한다.

숀은 가끔 어른스런 소리를 해서 요꼬를 놀라게한다. 『엄마, 보디가드없이는 밖에 나가지말아요. 엄마가 죽으면 난 고아가 돼요』

그러나 밤이면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침대에서 혼자 우는 숀을 발견하곤한다고 요꼬는 말한다.

아직까지 요꼬에게는 다른 남성이 들어올 틈이 없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나는 나와 존이 별거했던 73년과 74년에도 그 고독을 즐겼었어요.

그후 우리가 다시 결합했을때에도 절망과 고독때문이 아니라, 사랑때문에 결합한것지요』

요꼬는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자서전집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돼 쓰지 않고있지만 언젠가는 집필할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그녀는 전에 알고지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디어에 알을 [illegible]하고 있을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받고있다.

『나는 그같은 협박에 동조하지 않을겁니다. 우리가 우리생활에서 감추었던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요꼬는 센트럴파크에 마련될 스트로베리·필드계획을 거의 마무리짓고 있다.

레논을 기념하는 스트로베리·필드는 내년봄 완성될 예정이다.

그녀는 내년2월로 50살이 된다.

『내가 18살이었을때 50이 된 사람은 굉장히 완숙한, 그래서 생의 모든것을 알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나이 50이 되는데, 마치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좀더 늙고 좀더 현명해야 할것같은데, 오히려 전보다 생애의 확신이 서지않아요. 이나이쯤이면 어떤 일에도 상처를 입거나 무너지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신변위험에서 벗어나기위해 요꼬는 뉴욕 적어도 다코다아파트를 벗어나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래서 레논이 쓰러진 장소를 집에 드나들때마다 보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꼬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예정이다.

『이곳은 그와 내가 아름다운 삶을 가꾸었던 곳이고, 이곳에 있음으로 그와 함께 있을수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트 正門에 팬모여 夫人요꼬"이곳에있으므로 그와 함께…"

연말연시 자녀들에게 최대의 선물

ENCYCLOPAEDIA BRITANNICA

◉Encyclopaedia Britannica 26권(국민학교~대학원)
◉Britannica Discovery Library 12권(유아~유치원)
◉Yoyng Children's 백과사전 16권(유치원~국민학교)
◉Britannica Junior 백과사전 15권(국민학교~중학교)
◉가정상비용 Handyman 백과사전 "Do-It-Yourself" 21권
◉Britannica 세계명작대문학전집 전54권

▲ 플라토·호머·톨스토이·도스토에프스키·투도이프·섹스피어·아리스토텔레스외 유명한 사상가·철학가들의 명작전집
▲ 그외 의학사전·요리책·Holy Bible등 선물용 Order (delivery는 3주~4주 걸림.)

Please Order to Miss백 767—1702(오후6시 이후)

한인회 정기총회공고

한인회에서는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1월15일(토) 오후3시
장 소 : 한인회관 20 MOBILE DR.
안 건 : 1. 업무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보고
4. 신·구 회장단 이취임
5. 83년도 업무계획 예산안 보고
6. 이사선임위원 인준
7. 기타

한인회장 박 인 순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C1K8
533-7923 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K.B.A. 교환센터

◆4Feet Card Rack 구함.(481-2311 양정우)
◆4Feet Card Rack 8개 있음(845-5445 박만기)
◆6Feet Ice Cream Freezer 구함(469-1521 Mrs. 백)
◆4Feer 길이의 벽커에서 쓰는 Shelf 구함. (421-6880 Mini Mart)
◆10Feet Open Cooler(선반3줄 Good Condition) 을 가지고 있음. 2Door Pop Cooler와 교환하기를 원함(766-8849 문귀남)

해밀톤지구 실협 정기총회

조용구씨 회장 재선

◆조용구 회장

◆장홍규 부회장

◆정 덕 부회장

해밀톤지구 실업인협회는 지난11월17일 밤11시 Carlton Tavern(오승탁씨 경영)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겸)와, 해밀턴한인회(회장 이영구)에서 화환이 증정된 가운데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제2대 회장에 조용구초대회장을 재선출하였고, 부회장에는 해밀톤지구 담당에 장홍규씨, 벌링톤지구 담당에 정덕씨를 각각 선출하였다.

한편 협회의 공식 명칭을 「Hamilton-Burlington 한인실업인협회」라 개칭하고, 관할 지역을 Oakville과 Niagara Falls까지 확장하였다.

현재 해밀톤지구와 오샤와지구에 소재하는 실업인협회는 토론토에 본부를 둔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의 지부로서 지역에 따른 독립적 자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온타리오실업인협회가 실시하는 모든 「딜」은 양지역까지 미침으로써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상호 긴밀한 연락하에 폭넓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는 양지구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고 있다.

금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과 이사진은 아래와 같다.

〈임원〉
회장 : 조 용구
부회장(해밀톤지구 담당) 장 홍규
부회장(벌링톤지구 담당) 정 덕
총무 : 권 태규
재무 : 강 장석
사업 : 도 철환
옥-빌 간사 : 이 길천
벌링톤 간사 : 유 진
동부지구 간사 : 이 영재
서부지구 간사 : 정 원규

〈이사회〉
이사장 (1년) 김 철회
부이사장 (1년) 유 기훈
감 사 (1년) 임 영하
감 사 (1년) 민 명식
선관위원장 (1년)국 승담
이 사 (2년)이 병문
이 사 (2년)정 승환
이 사 (2년)차 인규
이 사 (2년)장 근원
이 사 (2년)차 동열
회원총수 85명

BBB에서 협회내방

지난 12월13일 BBB(Better Business Bureau)의 매니저 Robert J. Dees는 협회를 방문하고, 캐나다 비지니스계에 차츰 실력이 알려져 가고 있는 「한인실업인협회」를 찾은 것은 이만한 기반을 잡은 「실협」이 앞으로는 BBB와 같은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비지니스」에 관한 각종정보를 교환하고,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해 도움이 되자는 뜻에서 찾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BBB는 순전한 사업가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1935년에 창설된 메트로·토론토의 BBB는, 현재 1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각종 경제조직체제에 관한 정보상담에 응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00통의 전화 내지 서면상담에 응하고 있는 BBB는 Complaint만 연 1만2천건, 기타문의 통화수는 연 25만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사업 경영에 관한 해당 정부기관의 알선을 위시하여 알고자 하는 특정기업체의 신빙도, 나아가서는 거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정보까지 자세한 상담에 응하고, 이러한 자료는 고객으로 부터 들어오는 Complaint의 통계에 의해서도 측정된다고 한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Trufax〉지에는 신빙성있는 사업체, 현명한 투자방법, 고객의 불평감퇴동을 위시한 각종 경제정보를 게재하여 회원에게 써비스하고 있다.

BBB의 Complaint 상담중 뚜렷한 현상은 초창기에는 문의 1건에 Complaint 5건의 비율이었던 것이, 현재는 문의 20건에 Complaint 1건의 비율로 급격한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분명히 BBB는 공공이익을 위한 우수 사업체의 대변자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협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사업정보의 교환과, 당협회의 실력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BBB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Panasonic 경품당첨자

파나소닉회사의 K.B.A회원(거래회원 236명) 대상 11월분 경품추첨이 12월1일 협회사무실에서 실시되어 다음 8명의 회원이 당첨되었다.

당첨된 회원에게는 싯가 $34.95의 계산기 1대씩 세일즈맨에 의해 직접 가게로 전달된다.

한편 12월말에는 8개의 계산기 외에 싯가 $1,599.95의 비데오·카셋·레코더가 추첨된다.

Woody's Discount : 김영수
Fent's Variety : 권병현
Mayfair Meson Smoke : 최봉식
Dairy Milk Convenience : 안정섭
Royal York Smoke Shop : 최원보
Mister Milk : 김성기
Lakeshore Milk : 오병곤
Mackay Jug City : 홍사필

의료상담실 신설

협회에서는 Complanit 상담실과 법률상담실에 이어 의료상담실을 신설하고, 회원여러분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하오2시까지 실시되는 이 상담시간에는, 회원이면 누구든지 전화로 일반의료문제는 Dr.왕에게, 그리고 치과에 관한 문제는 Dr.윤에게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이미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두 의사의 특별봉사로 실협회원을 위하여 귀한시간을 할애하기로 하였으므로 건강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논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이 시간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

매주(수)12:00~2:00 P.M.
일반 Dr. 왕운린 968-1543
치과 Dr. 윤중태 925-2408

이색 비지네스 탐방

Black Sea Fish Wholesale

◆생선도매상의 전경

◆좌로부터 정근영, 손중수, 심용웅 제씨

협회의 차회장과 강상담실장이 Osler St. 소재 Black Sea Fish Wholesale사를 찾은 것은 파장무렵인 하오 4시경. 1만 스퀘어휘트의 넓은 주차장이 한산하리라 예상하고 들어선 실협의 방문자들은, 독특한 생선비린내와 더불어 소매를 위한 수십종의 생선 진열대에서 저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르느라 들러선 20여명의 각양 각색 사람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회사는 81년10월 보성고교 출신의 동창생 3명(정근영, 심용웅, 임호빈)이 파트너로 시작한 한인 최초의 생선도매업으로서, 지난 8월 임호빈씨가 개인생선가게를 오픈하여 이탈해 나가자, 역시 동기동창인 손중수씨가 대신 들어와 판매담당을 하고 있으며, 사장에는 정근영씨, 구매및 외무는 심용웅씨가 담당하고 있다.

십여년전 이민직후부터 실협회원으로서 코너스토어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황무지인 생선도매업에 뜻을 두고 의사결정하기 까지에는 정보의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년간 경험부족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뛴 결과, 이제는 업계동향과 더불어 과감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인수 1년만에 매상고도 급증하여 현재 연 3 Million에 육박하고 있으며, 십여명의 종업원이 쉴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때, 사업의 왕성함을 직감할 수 있었다.

천오백 sq.ft의 대규모 냉동창고에 저장된 30만달러(평균재고)의 생선들을 대부분 뉴욕에서 매주 심용웅씨가 직접 가서 수입하여 온다고 하였으며, 손님의 주류는 역시 포트투갈, 그리스, 남미 흑인들이며, 횟감을 위한 생선 구입은 한국사람이 압도적이라 하였다.

당회사의 정사장은 "수년 안에 많은 한국사람들이 생선 소매업에 손을 댈 것이라 예측된다.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로 Queensway의 Mr.윤과, Dixie Mr.임이 시도하여 상당히 성공적이며, 만일의 경우 실협회원중 매상이 적어 고전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 생선가게로 전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된 실협방문자들이 다각적인 질문을 통하여 얻어진 생선가게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장점으로는,

첫째, 소규모의 자본($1만~$3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순이익 50%의 높은 마진.

둘째, 주 5일의 짧은 영업시간

세째, 숙달이나 경험을 짧은 시간내에 터득할 수 있다.

네째, 사업의 안전성을 들 수 있으며, 예상외로 버리는 물건이 적다.(약5%)

단점으로는 지저분한 생물을 다룬다는 것이며, 한국적인 직업관념으로 인하여 많은 한국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뉴욕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생선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익률이 높은 관계로 주 3천달러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정근영, 심용웅 제씨는 생선가게에 관심이 있는 협회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상담에 응해 드릴 수 있다고 부언하고 있다.

한편 Black Sea사는 실협과 제휴하여 O.K.Brard의 냉동상품을 시판, 연구중이다.

실협의 방문자들은 즉석에서 썰어주는 싱싱한 생선회와 C.C맥주잔에 느긋한 기분이 되어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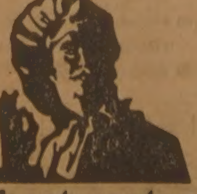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1-385-1485
서부지점 ☎:243-9544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Dempster's
DEMPSTER TOASTMASTER BREAD
BAKERS OF QUALITY BREADS,
SPECIALTY BREADS AND ROLLS.
협회상표가 든 본 제품은 회원에게만 배달됩니다.



Toastmaster
PHONE: (416) 537-5480

오샤와지구 성탄파티

본 실협 오샤와 지부에서는 당지역 전체 교민을 위한 성탄절파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12월17일 오후9시
◉장 소 : Oshawa Shrine Club
Simcoe St. N. Oshawa
(North of Taunton)
◉회 비 : 부부당 $25.00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오샤와 지부장 이 영 민

세일스맨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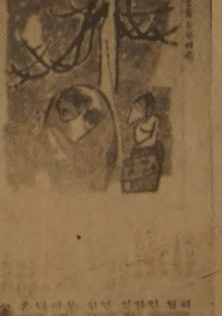
Humpty Dumpty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Salesman 1명을 구합니다.
희망자는 연락바랍니다.

◆자 격 :
(1)영어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분
(2)Van Truck을 운전할 수 있는 분
◆대 우 :
Excellent Salary & Benefit
◆연락처 :
Wally Baker
Tel: 743-9191(9:00~12:00 A.M.)

Humpty Dumpty

실협 칼렌다가 나왔읍니다!

운보 김기창화백의 화폭이 담긴 아름다운 협회 칼렌다가 서울에서 도착하여 새해의 선물로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직접 또는 인편으로 협회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당 1부)
이는 850회원에게의 우송료 1,700불을 절약하기 위함이오니, 회원제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실협총무 김 풍수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日 전각료·議員등 2백여명 돈받고 蘇 KGB에 協力

社會黨간부·言論人도
정보비 최고2백만엔

【東京=宋孝彬특파원】지난79년 東京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비밀경찰(KGB)요원 스타니슬라프·레프첸코소령(41)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駐日KGB요원들이 일본의 유력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여 정보수집을 해왔다는 美下院정보특별위원회증언 내용을 공표했다. 일본주요신문들은 10일자석간에서 일제히 이같은 내용을 1면머리로 보도했고, 때마침 국회가 개회중인 일본정계는 스파이 활동방지를위한 국가보호법의 제정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는등 큰파문이 일고있다.

美망명 前要員레프첸코 폭로

레프첸코는 9일 美下院의 증언록발표와 때맞추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KGB요원이 東京에서 활동하고 있는수는 50명에서 60명에 이르며 東京에 주재하는 소련대사관, 통상대표부, 蘇항공사직원, 타스통신등 보도기관 요원들을 포함한 3백여명 가운데 50%는 KGB 또는 소련군 정보부(GRU) 요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GB를 위해 활동하고있는 일본의 정보원은 25명, 협력자는 2백명이 넘으며 KGB협력자 가운데는 自民黨의 전직각료와 日蘇의원연맹회장, 社會黨간부및 의원연맹회장, 유력한 신문인이 포함돼있으며 日蘇의원연맹회장과는 거액의 정보자금이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파문과함께 협조자로 지목된 이시다·히로히데(石田博英) 日蘇의원연맹회장, 아스까다·이찌오(飛田一雄) 社會黨위원장및 산께이(産經)신문의 야마네·다꾸지(山根卓二) 상무겸편집국장은 각각 성명을 내고 증언내용의 관련사실을 부인했는데 아스까다위원장은 東京에 주재하는 KGB요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외신보도는 사실무근이며 美CIA의 날조된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레프첸코는 11일 워싱턴에서 駐美일본특파원들과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유력의원들에게 정보자금을 전달한것은 사실이며 협력자에게는 그 댓가로 4만~2백만엔을 정보가치에따라 지급했다. 가까운 장래에 협력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까소네수상도 이사건과 관련,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레프첸코가 폭로한 KGB요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못한다. 외교경로를 통해 그 진상을 즉각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日本을 온통 흔든 레프첸코
前蘇聯KGB공작원 스타니슬라프·A·레프첸코가 10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기자회견에서 美日간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위해 약 50~60명의 KGB요원들이 日本에서 활동했었다고 폭로했다。손에 들고있는것은 日本신문。 【워싱턴10日UPI합동=聯合】

農協조합장 間選制로

與野총무 內規개정키로 의견접근

與野는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任命토록돼있는 농협단위조합장을 直選制를가미한 間選制로 선출할수 있도록 農協임원任免에 관한 임시조치법와 內規를 개정하는데 의견접근을 보고있다.

李鍾贊 民正,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11일 국회에서접촉을갖고 이같은 원칙에합의한 뒤 農水産委의 간사들이 협의하도록하는 한편 13일 총무들이 다시만나 이문제에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林民韓총무는 이날『조합원의 적정규모의 總代를 지역실정에맞게 선출하고 이들 總代가 1명의조합장을 선출토록하는 民韓黨의 代案에대해 民正黨이 긍정적반응을보였다』고 말하고『法개정에 앞서 이를 시범적으로라도실시해보자는데 의견이 접근됐다』고 말했다.

현행 농협법46조와 1백23조는 조합장의 直選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임원 任免에관한 임시조치법에따라 현재 단위조합장은 農協중앙회장이 임명토록 돼있다.

民韓黨은 이들 법에 대한 개정안과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小委에 계류중이다.

美、北韓외교관 追放

入國허용조건 위반들어나면

【워싱턴=李文熙특파원】美국무성은 10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직원들이 미국입국조건들에 위배되는 활동에개입하거나 미국거주권을 남용할경우 이들을 추방할수도있을것이라고 말해 최근 논란이되어온 吳남철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앨런·롬버그국무성부대변인은 9일정오 브리핑에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유엔에 주재하고있기때문에 미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들의 유엔주재를 철회할수는 없으나 이들이 미국입국허용조건을 위반할경우는 추방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國公債 3兆발행

2억5천만弗 外貨債券도

政府、國會에 동의안 제출

정부는 내년에 국민투자債券6천억원, 국민주택채권4천억원을포함, 3조원에 달하는 國·公·金融債를 발행하고 2억5천만달러상당의 外貨표시 산업금융채권과 電力채권도 별도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국회에제출한 國債발행동의안및 국가보증동의안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투자채권6천억원 ▲국민주택채권 4천억원▲국민주택기금채권 1천억원등 모두1조억원의 國債와산업금융채권 5천억원등 1조3천3백억원의 公債를 발행하고 肥料計定의 韓銀차입금으로 5천7백억원을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금년의 2조6천9백억원에 비해 약3천억원이 늘어난것이다. 이같은 國·公債 발행규모는 최고 발행한도이기 때문에 全額을 발행할 가능성은없으나 이들 國·公債의 소화방법이 外貨표시채권과 국민투자채권 토지개발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첨가소화나 일반소화로 되어있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압박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外貨표시채권은 산업금융채권 1억5천만달러、전력채권 1억달러등 모두 2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억달러가 늘었는데 金利조건은 유럽금융시장金利(현재年10%)에 1%를 더하되 年18%이하로 되어있다.

◇金相浹국무총리㊧가 페루공식방문 첫날인 10일 마누엘·울로스·우요아 페루수상과만나 악수를 나누고있다。金총리는 오는14일페루방문을 마치고 칠레로 떠날예정이다。【리마(페루)10日UPI합동=聯合】

金총리·페루首相 회담

經濟協力 增進등 합의

【리마=河長春특파원】南美3개국을 공식순방중인 金相浹국무총리는 10일 낮12시30분(한국시간 11일 새벽2시30분) 두번째 순방국인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 이날하오4시(한국시간 11일상오8시) 首相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金총리와 우요아 페루수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개도국간의 경제협력증진및 기술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金총리는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 페루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우요아수상은 제3세계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지지를 다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특히 우요아수상이 『한국은 질서·단결·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면서 『경제·재정·기술등 페루의 경제개발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뒤 金총리를 공식수행한 徐相喆동자부장관 鄭震鎬상공차관및 경제인들은 페루의 재정·경제·통상차관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경제협력증진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2801

"한국등 4國서 신발不當去來"

美기업·勞組서항의

【워싱턴=聯合】윌리엄·브로크 미무역특사는 9일 브라질·일본·한국및 대만등 4개국이 미국시장에서 非고무신발류를 부당하게 거래하고 있음을 인정한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미국의 신발류제조기업과 AFL·CIO(미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 산하 섬유·의류노조등 노조단체들이 지난 10월25일 공동명의로 제출한 탄원서는 非고무신발류의 자유·개방시장거래를 촉구한것으로 당초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및 영국등을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한것이었으나 브로크특사는 그중 한국등 4개국에 대한 탄원만을 인정했다.

브로크특사는 그러나 美기업및 노조측이 탄원서에서 밝히고있는 한국측의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주장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한국정부가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관세부대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2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만 한국측과협상하기로결정했다.

미무역특사가 그같은 탄원을 인정할 경우 美행정부는 이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보고하며 GATT는 한국과 미국간의 쌍무협상을 우선한다.

來年 건설공사 74%早期착공

건설부는 고용증대, 경기부양대책의 하나로 내년도 발주 건설공사의 74%를 3월말이전(1·4분기중)에 앞당겨 계약, 착공하기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의하면 내년도 발주예정인 총3천6백43억원 규모 공사중 74%에 해당하는 2천6백99억원어치를 앞당겨 계약,착공할 계획이다.

조기발주할 공사중 88올림픽고속도로 9개공구및 조경공사등 계속사업75건 2천2백4억2천5백만원은 1월중에, ADB(아시아개발은행)5차및 IBRD(세계은행) 4차관도로사업등 신규사업을 2월중20건 4백77억1천6백만원, 3월중 3건 16억6천만원씩 각각발주토록했다.

내년도 조기발주공사금액은 올해의 83건 2천97억6천8백만원에 비해 29%가 늘어난 규모이다.

건설부의 조기발주공사확대방침에따라 光州圈종합개발, 지방공단및 택지조성, 平澤LNG기지건설등 각종사업이 연초부터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홀드리지 次官補 印尼대사에 인준

【워싱턴AP=聯合】美상원은 10일 존·홀드리지 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를 인도네시아대사로 인준했다.

상원은 이밖에도 ▲에드워드·라이오넬 펠국무성 이집트과장을 모리타니대사 ▲레브·도브리안스키 조지타운대학 경제학교수를 바하마 대사 ▲케네디·톰린슨 리더스·다이제스트 편집인을 「미국의 소리」방송국장으로 각각 인준했다.

社會漫評

와글와글 쉬쉬…
쉬쉬 와글와글…

地平線

체조경기에서 펼쳐지는 마루운동은 발레를 연상케 한다。음악에 맞춘 리드미컬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대로 예술처럼보인다。스포츠와 예술의 꿈같은 결합이다。강타와流血의 闘技인 복싱도 그 이상적 형태는 발레에가깝다는 의견이 있다。세계챔피언전에서 플라이어의 주먹을맞고 의식을 잃었던 아르게이요가 시합전에 떠들어댄 말이었다。상대 주먹을 춤추듯 피해 미스 키는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자랑했다。그러나 권투만큼 생명을「抵當」잡히고 싸우는 스포츠는드물다。▼복싱 역사를 훑어보면 상상키어려운 진기록이 눈에잡힌다。근대복싱의 기초가잡힌것은 1867년。영국의 퀸즈베리 후작이 그의이름을따서 퀸즈베리 룰이라는 규칙을만든때부터다。이 룰에 따른 세계 타이틀 시합가운데 40라운드를 넘겨 끝난 대결이 있다。1906년 미국의복서 갠즈 마크선수와 싸워 42라운드만에 반칙승을 거뒀다。세계타이틀은 아니지만 7시간19분이나 치고 받은 기록도 있다。밤9시 15분에 공이 울려 이튿날새벽4시34분까지 1백10라운드를 뛰고 더 계속못해 무승부가 되고 말았다。복싱天國 미국에서의 일이다。▼金得九의 아까운 죽음은 세계권투사상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WBC는 새해부터 세계타이틀전 15회를 12회로 단축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링 주변의 반응은 환영이면서도 착잡한것 같다。謹愼태도였던 맨시니가 라운드 단축에 코웃음쳤지만, 强打세례가 더 강렬해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높다。그러니 선수 보호에 대한 개선책은 의학적 측면에서 더 강화 되어야 옳다。▼뉴욕주경기위원회의 노련한 의사인 에드윈·캠프벨박사는 세계선수권 라운드를 10회로 까지 줄이지 못할 이유가무엇이냐고 반문한다。그에 의하면 복싱경기를 인정하는한 링의 회생은 절대적으로 예방할 방법이없다。그래도 개선책은 아직많다。뇌검사를 철저히하고 링닥터가 경기를 중단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는것이다。미국의 복싱관계자들은 링사고의 책임을 텔리비전도 피소한 느껴야 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프로복싱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우리 텔리비전의 자세에도 반성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金得九의 희생은 결코헛되지 않았다。국내에서도 선수보호를 위한 대책이 빨리 검토되고 마련되어야한다。「두뇌를 치는것은 스포츠가 아니다」란는 뉴욕타임즈의 현대문명인의 취미판은 다시 새겨 볼만하다。정말 발레같은 복싱, 그것을 보고 싶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큰뜻 이루게

<11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現代그룹 鄭周永회장 1億원

◇鄭周永회장

鍾路區平和統一諮問委 2백64만원
亞洲섬유代表 李治準씨 外 1백17만원

▲現代그룹 회장 鄭周永씨=1억원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鍾路區協議會 諮問委員一同=2백64만원 【日刊스포츠접수】
▲亞洲섬유공업사 代表 李治準씨外 職員一同=1백17만 2천9백60원
▲韋正一外科醫院=20만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부천시분회장외 회원一同=4만5천원 【소사지국접수】
▲在日本東大阪市新町22의23 朴孝明씨=4만원 【大阪支社접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옥교회 교인一同=1만3천3백원
▲原城郡富論面香林1里 韓昆熙씨=1만원 【原州지국접수】
▲경북예천군호명면 월포동359 최재락씨=5천원

韋正一外科의원 20만원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기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초대합니다

아래 두 단체에서는 회원 여러분과 항상 두 단체를 아껴주시는 선배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82년도 공동 연말파티를 개최코자 하오니 부부 동반하시어 하루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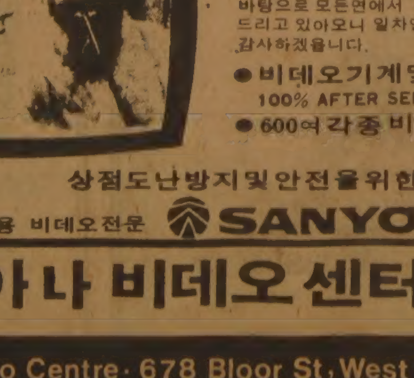
일 시 : 1982년 12월25일(토) 오후6시
장 소 : KENNEDY BANQUET HOUSE
(991 Kennedy Rd. at Lawrence Ave. 동남쪽)
내 용 : 6시~7시 : 칵테일, 7시~8시 : 디 너
8시~새벽1시 : 여 흥
(댄스, 도어프라이즈, 빙고, 밴드및 가수, 기념품 증정)

회 비 : 1인당 $25
연락처 : 최 호 영(☎ : 277-4580) 이 기 훈(☎ : 298-3584)

토론토 한인라이언스클럽 회장 서 준 경
토론토 한인골프협회 회장 김 현 모

긴겨울밤을 포근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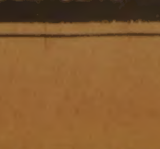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아침한때

열사람 犯人 놓치더라도…

不拘束主義저버린 국민의생각 고칠때

文仁龜 <변호사>

人權을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던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안된 1948년12월10일 국제연합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은 새삼 그 내용을 더듬어 볼 필요도 없이 인권의 高揚함을 선언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교육적이고 정신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므로 인권선언의 본래의 취지는 여러나라와 인류 개개인에게 그 내용을 주지 시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의 국어로 번역 될 것이 요청 되었다. 그 결과 각국은 12월10일을 전후한 1주일을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매년 인권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왔는데 오늘날의 인권선언은 단순히 교육적 정신적인 지침의 선을 넘어서 선언이 담고있는 규정은 국제연합 자체의활동은 물론 가국의 헌법과 입법, 조약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人間을 사랑해야

그러나 인권이 확고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는 각국의 열망은 국제연합으로하여금 1966년 인권선언의 내용을 좀더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두개의國際人權規約을 채택케 하였는데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관한 국제규약(A規約)이고 다른하나는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規約)이다. 다만 이규약은 인권선언이 세계의 모든 사람과 나라에게 주어진것임에 반하여 국가별로 비준 하거나 가입한 나라에 한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이미 이 국제규약도 많은 나라에 의하여 비준 됨으로써 實効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인권주간에서 했어야 한 일은 이 국제규약의 정신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가입 준비를 서두르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인권은 국제적인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므로 인권하면 으레 법률가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인권이 법률가들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인권사상의高揚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구체적으로 인권의 침해여부가 문제가 될때에는 법적조치에 의하여 그眞否가 가려지고 구제수단이 마련되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절차면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권에 관련된 법률의 해석이나 구제절차는 법률을 전공으로 하지아니한 일반국민의 양식이나 사고와 크게 다를바없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률가 못지않게 일반국민의 의견이 크게 제시되어야한다. 국민의 의견이나 사회의여론은 인권의 수호를위하여 절대적인 조건이다.

나는 여기서 금년에 있었던 몇가지큰 직결한 사건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인권수호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인권은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된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것 이지만 오랫동안 困難의생활을한 사람이 無罪판결을 받았을때에 더욱 큰 문제를 던져준다. 어떠한 범죄사건이 일어났을때에 眞犯人을 찾아내는 일은 비록 경찰이라 할지라도 쉬운일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고, 起訴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형사가 진범인이라고 믿고 기소를한 사람이 때로는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일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범인은 잡아서 처벌하여야한다는 요청이 있는한 재판에서 어쩌다 무죄를받는일은 부득이 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만 무죄에서 오는 피고인의 권리침해나 가족의 충격이나 사회에 미치는 좋지못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할수 있는일이다.

무죄에서 오는 좋지못한 영향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이 대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不拘束主義를관철하는수 밖에 없다.그러기 위하여서는 경찰과 검사의 구속기간을 훨씬 줄이고 검사가 증거수집을 끝내고 기소를 할때에는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일이다.

검사가 구속기소를 하였을 때에는 판사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불구속주의를 최대한 살릴수 있다면 무죄판결에서 생길 수 있는 폐단은 최소로 줄어들 것이다.

재판에 관한 보도가 있을때마다 제기되는 고문이나 강요된 진술서의 작성도 모두 불구속주의를 어긴 구속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불구속 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재판에 관여하는 法律家들의 良識과 사람이기에 罪를 진다는 人間愛가 가장 중요하지만, 죄를 진 사람은 집어 넣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국민의 풍조도 개선되어야만 한다.

市民정신 존중을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해놓고도 불구속주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은 너나 할것없이 국민의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이런 사조때문이기도 하다. 죄를 진 사람은 따로 있으니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 하면서, 죄를 지은사람은 잡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사고는, 하찮은 일로 생각되는 보행위반에서, 자기가 끌려가야 한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보행질서도 시민생활의 중요한 규범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주 가벼운 일이다. 그러므로 連行이라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보면 보행질서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경찰서에 연행 된다는 것은 許容될수 없다.

強制連行은 현행자체의 법적의미가 문제로 되지만, 특히 집단적인 연행에서 개개인이맛보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며, 한일과 그에대한 몇가라는 관점에서도 衡平에 맞지않는다. 신문에도 났지만, 집단으로 연행되어가는 교통위반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보는 사람에게도 수치심을주었다고 한다면 과언일까. B規約 제7조도 인간의 「品位를 손상하는 취급」은 하지 말라고하였는데…교통 위반이든일반 범죄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서울시민에 관한한 자동차를 탄든 걸어가든, 교통질서를 지키기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라는것은 알고있기 때문에, 교통질서를지킬수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주면, 교통단속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生活여건도 重要

교통질서를 지킬수 있는 제도나 환경개선에 대하여서는 갖가지 제안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엄동설한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엄동설한에도 걸을수 밖에 없는 庶民이 많은것은 우리만이 갖는 겨울사정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교통질서의 준수를 강행하더라도 영하 몇도로내려가는 추운 날에는 따뜻한 자동차 안에있는 사람 보다는, 떨면서 횡단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먼저 건너가게하는 따뜻한 길잡이는 할수 없을까? 신호등과 관계없이, 추위에 같이 떠는 경찰관이 앞질러 가려는 자동차를 제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건너가게 해줄때, 보행자 가슴속에 경찰관의 고마움은 스며들것이 아닌가. 법과 질서가 강조되지만 같은 법률, 같은 환경속에서도, 인권이 수호되고 법과 질서도 지켜지는일은 함부로 사람을 데려가지 말고 잊혀진人間性부터 회복한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법과 질서를 앞세우며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부터 사람의 손길을 펴면서 공공질서보다는 개인의 사정이 앞서는 시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호신뢰를 키우는 일이다. 보행위반과같은 작은 사회현상을 두고 다스리는자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갈등에서 인간성을 되살리는 일은 모든 사회현상을바로잡고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하는 길이다.

攻人之惡 毋太嚴 要思其堪受。
敎人以善 毋過高 當使其可從。

남의 악을 탓하여 선으로 향하게 하려 할때에 너무 엄하여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들일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가르쳐 선을 행하려할때 너무높아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생각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菜根譚에서 한 귀절을 인용하여본다.

스파이 衝擊에 일본政界 휘청

美國에 亡命 蘇첩자 레프첸코의 暴露로

右傾化 더 加速化 할지도

「東西정보」 最大의 洪水지대

規制法없어 1千여명 버젓이 活動

◇이시다·히로이데 日蘇우호연맹회장

◇아스까다·이찌오 社會黨위원장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스파이의 일본 간첩활동이 外電으로 전해지자 일본정계는발칵 뒤집혔다. 일본에서 활동한 前KGB요원 레프첸코는 소련 잡지 노보에·프레미아(新時代) 駐日특파원이라는 이름으로 75년2월부터 미국으로 망명한 79년10월까지東京에서 암약했다.

레프첸코소령은 美의회비밀증언에서 『KGB가 일본에서 2백명이상의 정계요인과 언론계 중진을 포섭하여 美日관계의 이간과 日中共우호의 증진방해를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중에는 自民黨 전직각료, 社會黨의 유력인사, 언론계의 사장등이 포함돼있고 日蘇우호商社를 통해 사회당에정치자금이 들어가고있다고 폭로했다.

레프첸코의 이같은 폭탄적인 발언은 그 眞僞야 어떻든간에 일본정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회당등 관계인사들은 해명성명을 내는등 일본정계는 KGB의 스파이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레프첸코의 폭탄발언이 10일하오 일본參議院에서 나까소네수상을 상대로 對정부질의를 벌이는 도중 미국으로부터 外電으로 날아들자 對정부질의를 제쳐놓고『누가 소련의 스파이인가』『소련 스파이와 접촉한 전직각료는 누구인가』를 수소문하느라고 의원들은 바삐 움직였다.

KGB의 공작대상으로 전해진 이시다(石田博英)日蘇우호연맹회장과 아스까다(飛鳥田一雄) 사회당당수는 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사실무근이며 美CIA에 의한 국제적 모략』이라고펄쩍 뛰었다.

아스까다 사회당당수는 이날 하오3시반 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외국기자라는 너울을 쓰고 KGB요원이 일본에서 활동했다면 사회당의원들이 그와 파티에서 접촉할수는 있으나 사회당이 아무리 가난한 당이라 하더라도 소련 스파이로부터 돈을 받을만큼 가난 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소련의 공작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지목되고있는 日蘇우호연맹위원장인 이시다의원은 『말도 끝도 없는 중상모략이다. 소련 잡지기자들이 대부분 KGB요원이란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사람이 누가있겠는가』라면서 소련 KGB의 협조자라는 것을 극구 부인했다.

다나까前수상을 도중하차시킨 록히드사건이 74년 미국으로부터 터져나온 이래외국으로부터의 뉴스로 이처럼 일본정계가 뒤흔들린 일은없다. 나까소네수상도 11일기자회견을 갖고 『레프첸코 前KGB요원의 간첩사건을 외전으로 듣고 대단히 놀랐다. 일본이 스파이 천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KGB요원들이 정계요인까지 포섭했다는 외전보도는 경악을 금할수없다. 외교채널을 통해 그진상을 곧 알아보겠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니까이도(二階堂進) 간사장도 『레프첸코의 일본내에서의 첩보활동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국내조치가 불가피할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찰청장관을 지낸 고도다(後藤田正晴) 관방 장관은 『오랫동안 외국간첩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보아 소련스파이들이 일본정계요인과 접촉하려 끈질기게 노력하고있는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는다. 이런 스파이사건은 흔히 있는 일이며 만일 각료중에 소련KGB요원과 접촉한 사람이 밝혀 진다면 용서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보였다.

일본은 東西洋의 정보가교류되는 지점으로 각국스파이들이 정보수집을 위해 날뛰고 있어 정확한수는 알수없으나 1천여명을 넘는다는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80년 소련대사관 무관 코슬로프대령이 前자위대장교를 매수하여 방위청과 자위대 병력배치계획등이 고스란히 모스크바로 흘러들어간사건들이 일어나 큰정치적 문제로 등장 했었다.

그러나 스파이활동을 엄제히 다스리는 법적규제가없어 코슬로프는 추방되고소련스파이에 협력한 자위대간부는직무유기로 3년의 집행유예를 받는정도의 가벼운 처벌만받았다.

일본이 소련과북괴등 공산진영국가의 스파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있는 무대가 된것은 이같은 상황때문이다.

自民黨 일부에서는 공산진영국간의 스파이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기위해 비밀보호법률을 만들어 국가비밀을탐지하려는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있다.

일본치안관계자는 레프첸코의 스파이활동과관련,일본정계요인들이 소련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사실이 드러났다해도 이를 처벌할법적근거가없어 형사사건으로는 취급할수없게돼있다고말했다.

어쨌든 일본정계는 소련의 거물간첩 레프첸코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자민당각료급인사와 사회당의 중진의원들 정치인의 명단공개를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있다.

이처럼 일본정계가 발칵뒤집힌가운데 레프첸코는 11일 다시 주미일본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가까운 시일안에 KGB요원에게 협력한 일본 정치인의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레프첸코는 이자리에서도 東京주재 소련대사관,소련통상대표부, 소련합동회사의직원이나 타스통신등 보도기관의 특파원들은 약3백명이있으며 그중 50%는 KGB의 정보요원이라고 폭로했다.

레프첸코는 모스크바 대학 동양어학부에서 일본어 일본역사및 일본정치에대해 공부했다. 그후 소련의 아시아·아프리카 연맹위원회에서 일한후 72년 KGB 제1관리본부(외국정보활동담당)에서 KGB의 간부로 발탁되어 KGB에서 해외요원교육을받고 해외특파원으로 위장한후 75년 東京에 부임했다.

그의 명함에는 소련의국제문제 주간지 노포에·프레미야(新時代)의 東京특파원으로 돼있다. 79년 레프첸코가 담당한 일본인 정보원은 수십명이 이르렀으며 한달 동안에 20~25회의 비밀접촉회의를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KGB 東京지부는 모스크바로부터 매일 3~5건의 활동지시를 받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매스컴에 대한 침투공작으로 레프첸코는 유력한 신문들의 간부4명과 접촉, 포섭했고 3백만부이상의 발행부수를 가진 일본산께이(産經)신문과도 접촉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회당과 입 소의원연맹은 레프첸코와의 접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자민당 강경파의원들은 차제에 정계내의 스파이활동을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일고있어 일본정계에 큰 파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메아리

큰 宿題

金昌悅 <編輯委員>

헌법이 나라와 국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한 일반원칙이라면, 그 핵심은 基本權조항이다. 그제 제34회 世界人權宣言 기념일을 맞아, 俞泰興대법원장이『基本權보장은 우리나라 존립의 기초이며 국가가 국민에대해 부담하는 최대의책무』라고 한것은 이를 말함이다.

이 말은 한낱 修辭에 그치지 않는다. 基本的人權은 나라가 존립하는 기초이기때문에, 人權의 침해는 곧 나라의 正統性을 손상하는 결과를 빚는다.

더구나 요즘은 人權보장이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국제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를보이고있다.이렇때의人權보장은,나라의 대내적책무일뿐 아니라,대외적인 약속이며,의무가 된다. 그것은 국제사회 成員의 資格證明과도 같고, 남과 북이 대치한 우리 처지에서는,우리의 正當性을 주장하는 가장 뚜렷한 근거가 된다.

人權의 국제적인 의미는, 각 나라와 국민들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함이 없이는 인류발전을 위한 자유·정의·평화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자기 국민의 人權을 존중할 줄 모르는 나라란 결국「세계평화의 敵」일 수밖에 없다는, 두 차례 大戰을 통한 깨달음의 결과인 것이다. 人權을 국가 존립의 기초라고 하는 뜻은 이런데도 있다.

그 같은 人權의 인식은 벌써45년의 國際聯合憲章과 48년의 世界人權宣言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宣言의 일반원칙은 66년의 國際人權協約으로 結晶되었고 그 協約은 76년 발효를 보았다. 人權이 국제사회 成員의 의무로 규정되고 人權은「定義의 시대」에서「實現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가 世界人權宣言의 선포를 해마다 기념하는 뜻은 이같은 대원칙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이다. 그것은 우리의 國家理念을 재확인하는 것이나 같다.

그러나, 人權행사의 뜻과는달리,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人權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미 80여개국이 가입한 人權協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않고 있는이상 그것을 부인할 길이없다.

이른바 多國間條約인 人權協約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A協約)」과「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B協約)」,「선택적 議定書」로 구성된다. A·B 두 協約은 人權宣言의 여러원칙을 조문화한 것이며, 議定書는 B協約의 침해사실을 國際聯合 人權위원회에 제소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A·B協約은 그 원칙에 있어서, 人權宣言에 共鳴한 우리 헌법의 基本權조항과 일치한다. 구체적인 국내법률 규정중에서, 그 내용이 協約규정보다 미흡한 것이 발견되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議定書는 그야말로「선택적」인 것이니까, 판단하기에 달렸다. 실제의 議定書 가입국도 31개국뿐이다.

그래도 人權協約과 국내법의상충이 문제된다면 그 관계 조항만의 가입을 유보할수가 있다. 아예 A·B協約중 하나만 가입해도된다. 그보다야 물론 국내법을 정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정비할 법조문이 많은것도 아니다. 死刑지 대상이, 協約은「18세미만」, 우리소년법이「16세미만」인 따위의 조정이 어려울 까닭이없다. 더구나人權協約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의것이라,그 스스로가「점진적인」실현을 想定하고 있음에야.

이런데도 우리나라가 人權協約에 가입않고 있음은 이해못할 일중의 하나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듭 천명된 새공화국의 統治理念과도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人權상황이「混合的」이란,알듯 모를듯한 평을 듣는다 (슈스미드·美국무성 副次官補의 의회증언=한국일보11일字2면).

다행히 근래와서 정부는 人權協約가입을 검토하리라고 보도되었다. 지난6월 國際赦免委(앰네스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가 낸 질의에 대하여도, 외무부는 같은뜻으로 답변한바있었다.

그러나 아쉬운은, 그 답변 후에 이어지는 검토작업이 별로 활발하지 못한듯 한 것이다. 協約가입을 전제로 人權法制를 총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새 공화국이 발족된 뒤로 이른바 사회발전 沮害法令의 정비작업이 진행중임은 모두가 안다. 人權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人權法制의 정비는 그 작업의 최우선 과제가되어야 옳다. 대법원장의 말대로, 人權이 국가존립의 기초라면, 그 작업은 사회발전의 차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님을 깨달아야 한다.

人權協約가입은 올 人權주간을 보내며 생각하는 가장 큰宿題다. 늦어도 내년 이맘때까지의 宿題해결을 기약할수 있도록, 그 준비작업을 앞당겨야 마땅하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기초, 북괴에 대한 우리의 正統性·正當性을 다지는 길이다.

끝으로 한가지만 附記해 둔다. 그것은 북괴가 작년 9월14일 人權協約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다. 그 뻔뻔스러움은, 북녘의 人權실태를 잘아는 우리가 대놓고 규탄할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協約에 가입않은채로는, 우리의 正當性 주장마저 설득력을 잃을까 걱정이다.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성탄 특집호 ……………………
23일 발행(광고마감 21일 오후5시)
*신년 특집호……………………
30일 발행(광고마감 28일 오후5시)
☎ 533-2361 광고국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한국일보 (특집판)

現代史의 現場 ⑧

題字 原谷 金基昇

義兵대장 毅庵 柳麟錫

1次義擧、乙未事變이 발단

韓末 의병사의 첫장을 찬연히 장식하고있는 堤川의병의 本陣은 天險의 요새이자 은둔의 마을이었다.

堤原郡 鳳陽面 孔田里 長潭。堤川역에서 忠北線열차를 타면 鳳陽역 다음이 孔田역이다. 거리로 20㎞가 채못되며 시간으로 20여분이 걸렸지만 이사이 긴 터널이 3곳이나 있다. 하루에 다섯차례 왕복하는 버스길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유를 알만했다.

堤川의병의 의병대장 毅庵 柳麟錫이 이곳을 本陣으로삼았던 것은 이곳이 바로 韓末의 巨儒 省齋 柳重教가 학문의 터전으로 잡았던 儒生들의 집결지 였던때문이었다.

華西 李恒老의 學統을 이은 省齋가 이곳에서 별세한것은 閔妃가 시해된 乙未事變(1895년)이 있기 3년전이었다. 省齋의 수제자였던 毅庵은 省齋사후 門人들의 천거에의해 省齋의 學統을 이어받기위해 고향인 江原道春城郡 南面 柯亭里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해왔다.

일본과 서양으로부터 도도히 밀려오는 개혁의 물결로인해 전통이 몰락해가고 國基와 民生이 혼란에 빠져드는 현실앞에서 憂國衷情을불태우고있던 韓末의 선비들에게 國母의 시해사건은 큰충격이었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邪學을 퍼뜨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고 자기 동조자를 구하여 우리나라실정을 낱지하며 후에 군대를 이끌고들어와 아름다운 우리풍속을 짓밟속에 쓸어넣고 우리재물을 약탈하여 저희들의 탐욕을 채우려는데 있다」(華西文集)」고 일찌기 李恒老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華西의 衛正斥邪論은 이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正」으로 倭洋의 문물을 「邪」로 규정하여 이를 배격하였다.

이같은 학통을 이어받은 毅庵등 堤川의 儒生들에게 外勢에의한 國母의 시해사건은 더이상 앉아있을수만은 없다는 절박감으로받아들여졌다.

毅庵은 그해 長潭에서수백명의 문하생들을불러모아 處變儒生대회를열었다.

이자리에서 儒生들은 그들의 앞으로의 거취를 논의했다。의견은 대략 세갈래로나뉘어졌다。그중 하나는 갈연히 일어나 항거하자는 擧義掃淸派였고, 다른 하나는 해외로 망명하여 수절하자는去而守之派였으며 마지막 하나는 국내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자는 自靖救命派였다。그러나 衆論은擧義掃清이었다.

당시 毅庵은 모친상을 당해 고향인 柯亭里에서 여막을 지키고 있었다. 나라의벼슬아치도 부모의 상을 당하면 벼슬을 내놓고 3년상을 치를때까지 여막을 지키는것이 법도였기때문에 毅庵은상을당한 몸으로 나와 나설수없다하여 去而守之의 길을 택했다.

義氣가 하늘을 찌를듯했던 堤川의 儒生들은 乙未事變이듬해인 1896년1월擧兵, 楊平과 原州 堤川일대를 휩쓸었다. 儒生과 농민·포수등 서민계층까지 합세한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게되자 이를통솔할수있는 강력한 지휘체계가 요구되어 毅庵을 찾아가 대장의 수임을 맡아달라고 눈물로 청했다.

부모상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고나서 부모가 있는게 아니냐는 문하생들의 간청에 毅庵도 거절할 말을 잃었다.

당시 그의 나이 55세였다.

毅庵을 대장으로한 湖左倡義軍은 먼저 親日관리의 처단에 착수, 단양군수 權濬、청풍군수 徐相耆를 처형하고 2월17일에는 忠州府를공략, 관찰사 金奎軾을 처단했다.

당시 충주부근의 水安堡와 佳興에는 일본군 수비대가주둔하고있어 의병에의한 忠州城점령은 정부에도 큰충격이었다。그러나 일본군3개중대의 지원을 받아 반격에 나선 정부군과 15일간에걸친 치열한 공방전끝에 많은 장수를 잃고 끝내는 세에몰려 堤川으로 퇴각해야만 했다.

5월23일에는 堤川에서 관군과의 대회전이 벌어져 온거리가 피바다로 변했다。湖左倡義軍은 많은 병사를 잃고 다시 丹陽으로 퇴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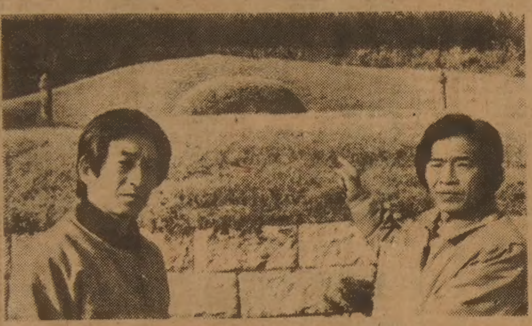
그해 6월10일 原州에 집결한 毅庵의부대는 寧越 平昌을 거쳐 7월11일 大和에 이르렀다. 毅庵은 여기서 滿洲망명을 결심하고 잔여부대를 이끌고 북진했다. 8월23일 압록강변 楚山에 이르기까지 毅庵의 부대는 숱한 혈전을 치렀다.

乙未년 1월부터 전국에서 불붙기 시작한 1차의병항쟁은 관군과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밀려 그해 10월께 일단은 거의가 해산했다. 의병항쟁은 義만을 앞세운 거의 맨주먹에 가까운 항쟁이었다. 그만큼 많은 희생이 수반되었다.

기진한 의병부대들은 관의 회유책에 말려 또는 내부반란에의해 하나씩 해체됐다.

毅庵의 부대는 최후까지 항전하다 패배한 의병부대가운데 하나였다。그러나 관의 회유책을 거부한 채 뒷날을 약속하며 망명길에 올랐던점이 다른 부대와 달랐던 점이었다。사실 제2차 의병항쟁인 1905년 乙巳의병때 堤川및 洪川 龍川 등지에서 거병한 의병장들은 모두 毅庵진영에서 활약했던 장수들이었다.

◇항일의병의 첫 起兵地 長潭에 세워진 紫陽影堂은 의병대장 毅庵 柳麟錫등 우국충절에 불타던 韓末 儒生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있다. 앞쪽에 있는 건물은 대문을 겸한 版庫로 올해 지어진것이라고 관리자인 李昭鎔옹은 설명했다.



◇77년 성역화된 毅庵묘역. 해방전까지만도 비석조차 세울수 없었던 이름없는 무덤이었다고 말하는 然裕(左)、然五씨등 두손자.

◇毅庵묘역의 영당안에 봉안된 영정。

毅庵은 압록강을 건너기에 앞서 관리들에게 보내는 제2의 격문을 썼는데『끝내여러분에게 희망을 포기할수없으므로 다시한번 피를뿌려글을써서 드리는 바이니 여러분들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마음을 고쳐서 내몸보다 임금을, 내집보다 나라를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再檄百官의 한귀절이다.

1898년 高宗의 소환명령을 받고 일시 고향에 돌아온 毅庵은 나라에서 내린벼슬을 마다한채 이듬해 다시 滿洲로 갔고, 1900년중국서 義和團의 난리를 피해 귀국하여 平山, 泰川, 介川, 龍川등 평안도및 황해도일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1907년 丁未7條約이 체결되던해 일본군에의해 고향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참살당하는 비운을 겪고 해외기지개척을 더이상 늦출수없다고 판단, 이듬해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이때 그의제자 50여명이뒤를 따랐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곳 애국지사들과함께 貫一約이란는 의병조직을 만들어 질서를잡았고 1910년초에는 연해주의병연합체를 만들어 13道義軍都摠裁에 추대되었다.

庚戌國恥때는 高宗의 연해주망명을 권하는 밀서를올렸으며 李相卨과함께 聲鳴會를 결성, 회장으로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열강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어느것도 사태를되돌릴수 없었다. 더우기 소련령의 연해주는 소련과 일본간의 밀접한 외교관계로 인해 독립운동의 적지가 못됐다. 따라서 1913년 滿洲로 다시 옮겨간 노망명객은 이듬해 奉天에서 74세를일기로 생을마쳤다. 의병대장으로서 毅庵은 사상적인 한계와 무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지않았던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포수출신의 선봉장 金百先을 선명한 이유없이 처형한 사건이 꼽히고 있다.

金百先은 忠州城 재탈환작전에 선봉을 섰었는데 지원을 해주기로했던 전군장 安承禹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패전하고 本陣에 돌아와 분노한 나머지 安承禹를 향해 칼을 뽑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毅庵은 상관앞에서 칼을뽑았다는 이유로 金百先을 처형했는데일부 史家들은 安承禹가 儒生출신인데비해 金百先이 서민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쉽사리 처형한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사실 이 사건이후 堤川진영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던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本陣은 長潭…儒生 집결지

忠州城점령 官軍에 충격、日軍가담으로 退却

그러나 毅庵의 증손뻘인 然五씨 (柯亭里)는 金百先의 처형은 일부 추측대로 班常 문제는 아니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毅庵이 쓴「昭義新編」4권「義卒에 祭함」에서 毅庵이 보여준 사병에대한 애정을 그 증거로 들수 있다고 말했다.

1900년 滿洲에서 일시 귀국해있을때 쓴 이글은「稀雪腑하고 東向하여 통곡하노라」라고 시작하여「임금은 나라를위하여, 신하인 금을 위하여, 서민은 마땅한 죽음을 위하여 죽는다. 비록 귀천은 다르나 天理에 義를 얻은것은 같다」고 사병의 죽음을 애통해하고있다.

이 「글은 이어 「亂賊들은 모두 귀하고 높은사람들이다. 그들은 욕을 당하면서도 죽지도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그들과 그대들이 죽음사이에 天理를 얻고 잃음이 어떠하냐」고 꾸짖지 못한것이 한이라고 피를 토하듯이 술회하고 있다.

然五씨는 「毅庵集」에 春川진영에서 활약했던 柯亭里출신의 포수 金敬達에 관한 기록을 傳記로 수록하고있는 것을 보더라도 毅庵이 출신을 이유로 병사를 차별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堤川진영의 기병지인 長潭에는 紫陽影堂이 있어 韓末유생들의 우국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지방문화재 36호로 지정된 이 영당에는 朱子와 宋時烈을 비롯 省齋 毅庵 그리고春川의 의병장이었던 習齋 李昭應의 영정을 모시고있다.

紫陽影堂을 관리하고있는 習齋의손자 李昭鎔옹(79·孔田里414)은 이영당이 80여년전 毅庵과 習齋가 통문을내어지은것이라고말한다.

지난해 대문을 겸한 版庫를 지어 省齋가 쓴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목판을 보관하고있다. 宋元및 高麗史를 수록한 이 木版은 모두 1천3백80매 2천6백6張으로그동안 강당에 쌓아두었다가이번에 비로소 版庫에 보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곳에 모셨던 여섯분의영정은 李昭應이 자택에 보관하고있었는데 10년전 영정을 도난당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毅庵과 省齋가 거처했던 집은 지붕만 초가에서 양철지붕으로 바뀌었을뿐 지금도 현존하고 있었다.

李翁은 6·25때도 괴뢰군구경을 못한곳이기때문에 집들이 형체나마 유지하고있는가보다고 했다.

옛날 의병들의 함성소리가 하늘을 찔렀을것으로 여겨지는 紫陽影堂앞의 현판장터는 고추밭이 되어있었다.

柯亭里에있는 毅庵의 유택은 지난77년정부에의해 성역화되어 봄·가을로 제사를모시고있다.

이곳은 高興 柳씨의 고을이어서 지금도 2백여호중 1백50호가 柳씨가문이다.

묘소를 관리하고있는 종손 然裕씨(43·柯亭里)는 제사때면 일족이 모두동원돼 祭需를 장만하고있다고 말한다. 毅庵의 유골은 1935년 奉天에서 이곳으로 이장됐다.

然裕씨는 毅庵의유골은 일제의눈을 피해 은밀히 이장되었다고 말하면서 당시 일본주재사로 柯亭里에 주재하고있던 梁모씨(72)가 비밀을 지켜준것이 도움이 된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한다.

이장하면서 儒生들이 만들었던 묘비는 세우지도 못한채 땅에 묻어두었다가 해방후에야 세우게 됐다고한다.

【林鍾乾기자】

두차례 義擧는 독립魂의 昇華

思想·精神기리는 銅像 도로변에 옮겼으면…

朴成壽 <국사편찬위편사실장>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春川에 다다르면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입구 왼편에 동상하나가 외롭게 서있다。바로 의암 유인석선생의 동상이다。재작년 강원대학에 출강할때 일주일에 한번 지나며 우러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리와 향이 썩 좋지 못하다고 몇번이나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

유인석 선생은 한말 최대의 유학자이시자 최대의 義兵將이었다。그가 춘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비단 춘천시민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자랑이라 할수 있다。기왕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셨다면 좀더 국도에가까운 곳으로 자리를옮겨 순례를 발원하는 모든 이에게 참배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의병전쟁은 두차례 크게 일어났는데 제1차 전쟁이 1895년 초부터였고 제2차 전쟁은 1905년에 시작되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직전까지 계속되었다。한말 의병이 간도독립군의 모체였던사실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그러니 이 전쟁은 틀림없이 우리나라獨立戰爭이었던것이다。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전쟁을 혹시나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다루지 않나 두려울 따름이다。

개항20년만에 國母가 弑害당하여 궁성이 피투성이가 되지않나、전국에 斷髮令을 내려 순검이 가위를 들고 함부로 선비의 상투를 자르지않나、음력을 양력으로 고쳐 하루아침에 당당한 독립국가를 왜놈의 「작은나라」로 만들지않나、당시의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의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매천의표현을 빌면 전국이 물끓는 솥같았다。

먼저 강원도의 선비들이 擧兵하였으니 모두 유인석선생의 문하생이었다。李春永 安承禹등 제자들은 선생을 의병총대장으로 추대하여 충주、단양、원주일대를 장악하여 전국 유생의 궐기를 호소하였다。유인석이 쓴 檄文은 守舊獨立精神을 천하에 포고한 것으로서 가슴을치고 통곡하던 유생들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워준 名文章이었다。그는 親日開化派를 군주와 나라를판 무리(賣君賣國之徒)라 비난하고 개화를 빙자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禮義之國인 우리나라를 悖倫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개탄하였다。

전쟁은 남한에서 시작되어 북한으로 확대되었으며 金弘集의 친일정부가 무너진 뒤에도 계속되었다。김홍집의 시체는 저자에 전시되었으며 魚允中은 서울을 빠져나가 龍仁을지나다 우연히 魚死里(어씨가 죽는 마을)에서 주민에게 맞아 죽었다。

유인석과그의부하인들이일으킨 의병전쟁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日帝侵略을 일시멈추게 하였으나 영구히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다。그 이유중의 하나가 의병에게 신식무기가 없었다는 것이다。의병들이 사용한 무기는 火繩銃이었다。이 구식소총의 사정거리는 불과 10步였고 散彈銃이었기때문에 치명상까지 입히지 못하였다。그러나 이런무기를 갖고도 용감하게 싸운것을보면 우리의 선비들이 단순한 文士가 아니라 武士이기도했던 사실을 알수 있다。

유인석의 의병군이 忠州城을 점령했을때 병력이 3천명에 이르렀다。그런데 봄이 지나고 장마철이되자 화승총은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바람이 불어도 쏘기어려운데 비가오게되면 화승총은 무기가 아니라 거추장스런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그래서 의병들은 총을 곳곳에 묻어놓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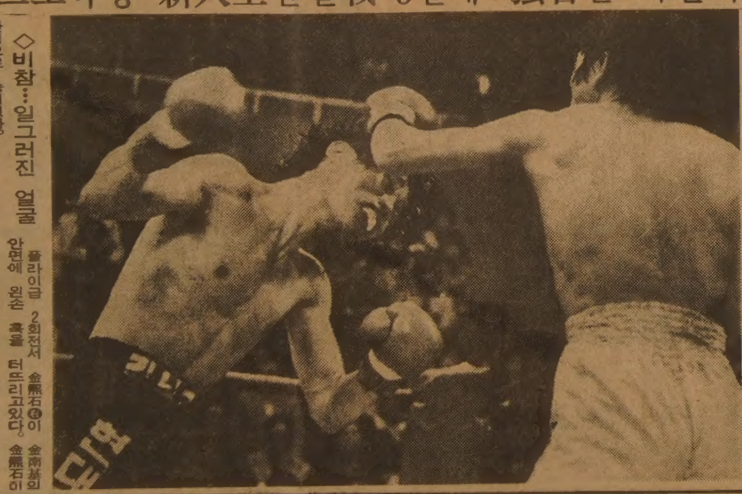
유인석은 결국 비에 진 것이었다。패전한 유인석은 間島를 第二의 祖國으로 보고 일찍부터 그곳에 亡命政府의 수립을 계획하였다。이른바 그의 北遷之計였다。유인석은 모두 세차례나 간도를 왕래하면서 背城一戰을 실천에 옮겼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 移住하였다。

그의 계략은 원대한 것이었고 한 나라 2천만 민족이 一의 齊同心과 一齊辨死를 부르짖는 비장한 抗日투쟁 전략이기도 하였다。

安重根의사가 유인석을 찾아 뵙고 그의 義擧를 아뢴뒤 격려를 받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의병전쟁의 神話的 存在인 유인석의 思想과 精神을 보다 철저하게 추적하는 일은 義兵研究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70년 抗日獨立運動史의 思想과 業績을 이해하는데도 긴요한 일이라 할것이다。

프로복싱 新人王선발戰 5일째…強者들 떠올라

金準玄(J밴텀) KO勝



◇비참…일그러진 얼굴 플라이급 2회전서 金熙石이 金南基의 안면에 왼손 훅을 터뜨리고있다. 金熙石이 판정으로 승리했다.

82년 프로복싱 전국신인왕전 5일째 경기가 11일 문화체육관에서 열려 주니어플라이급、플라이급은 8강,주니어밴텀급、밴텀급은 4강이 결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주니어플라이급의 昱石(인천 슈퍼)은 폭발적인 양훅을 터뜨려 1회전에이어 또다시 KO승、유력한 우승후보로 떠올랐다。또 플라이급의강타자 李在浩(청소년)도 강펀치를 휘둘러 1라운드에서 상대를 눕히고 역시 2전 2KO승으로 KO 퍼레이드를 벌였다。주니어플라이급에서 2연속KO승으로 주목을 모았던 林夏植(성남제일)은 이날 판정승을 거두었는데 한차례 다운을 뺏는등 위력을 과시했다.

주니어밴텀급 金準玄(삼우두꺼비)도 4회KO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예선최종일인 12일에는 주니어플라이급、플라이급、주니어페더급、페더급、주니어라이트급、주니어미들급등 6개체급에걸쳐 준준결승 24게임이 벌어진다.

주니어플라이급 1회전서 申成日을 2라운드KO로 눕혀 강타를 과시했던 昱石은 이날 鄭泰善(거인)을 맞아 폭발적인 좌우훅과 보디집중공격으로 2차례의 다운을 뺏은뒤 2라운드30초만에 KO승했다.

昱石은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의 昱石은 경기개시 공이 울리자마자 대시、소나기펀치를 퍼부어 첫다운을 빼앗고 2라운드서도 복부에 이은 좌우양훅 맹공으로 鄭을 그로기로 몰자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다。昱石은 준준결승에서 崔兢洙(태성)를 판정으로 꺾은 金順福(현대)과 4강진입을 놓고 격돌한다.

같은 급의 金政賢(주승)은 辛甲文(광무)과맞서 3라운드 1분40초만에 KO로 이겨 崔俊春(원진)와 준준결승서 대결한다.

◇제5일전적

▲주니어플라이급3회전

金政賢(주승) KO 辛甲文(광무) 3회1분40초

昱石(인천슈퍼) KO 鄭泰善(거인) 2회30초

▲동플라이급

李在浩(청소년) KO 張鎬鎭(부산동부) 2회1분33초

▲주니어밴텀급준준결승

金準玄(삼우두꺼비) KO 裵注源(정일) 4회1분3초

구독신청 배달사고 930·2361

한국、東獨에도 져

세계女子핸드볼、28대22

【부다페스트(헝가리)=聯】 한국여자핸드볼팀은 11일새벽 부다페스트스포츠 홀에서 열린 제8회 세계선수권결승리그 3차전에서 6、7회우승팀인 강호 東獨에 28－22로 패해 통산4패를 기록했다.

또이날 소련은 체코를14－12로눌러 4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를지켰고 유고는 홈팀헝가리를 17－16으로꺾어 3승1패를 마크、2위를 달리고있다.

◇결승리그 3차전

동독 28－22 한국

소련 14－12 체코

유고 17－16 헝가리

KO선수 45일間 休息義務化

美네바다州 채택

【라스베이가스(美네바다州) AP=聯】 美네바다州 경기위원회는 10일「복싱경기에 혁명」을 가져올 3개항의 개정규칙안을 채택했다.

시그·로지크위원장은 복싱경기의 이번 규칙 개정에는 ▲선수부상이 염려될때 주심의 재량으로 스탠딩·카운트 8까지 세며 ▲라운드간 휴식시간을 종래의 60초에서 90초로 늘리고 ▲KO된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45일의 휴식기간을 갖도록하는 동시에 뇌검사를 받도록하는 것등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하고 이규칙개정은 한국의 金得九선수 사망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복싱경기의 혁명을 가져올것』이라고 덧붙였다.

WBA헤비급

독스、챔피언으로

위버 63秒만에 눕혀

【라스베이가스=聯】 마이클·독스(미국)는 10일밤(현지시간) 이곳 시저스팰리스호텔특설링에서 열린 WBA헤비급 세계타이틀전서 챔피언 마이크·위버(미국)를 기록적인 1라운드63초만에 KO로 물리치고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다.

독스는 이날 시작공이 울리자마자 자신의 코너에서 총알처럼 뛰어나와 레프트로 위버의 머리를 강타하고 이어 좌우콤비블로를 터뜨렸으며 위버는 주심으로부터 6까지 카운트됐다.

4體級 석권

한국、亞洲태권도

【싱가포르AP=聯】 제5회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10일 핀급과 헤비급을 비롯한 4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싱가포르의 가이월드 체육관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핀급의 崔天은 臺灣의 왕·칭·샹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페더급의 張明三、미들급의 李東瀛도 각각 카타르와 濠洲선수를 제압하고 선수권을 획득했다.

헤비급에 출전한 張勝和는 타이의 암나트·포사용선수를 물리치고 중량급의 패권을차지했다.

全北 1착

統一驛傳 8구간서

제12회 통일 역전마라톤대회 8일째 경기가 金泉－大田간 96.6㎞코스서 벌어져 全北이 5시간22분15초로 大田에 선착했다。그러나 全州－大田간(742.9㎞) 중간 종합기록서는 全南이 40시간0분19초로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있다.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부품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마크(LOGO)당선작 발표

YOUNG I. HYUN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ANTS INC.

(주)현영일 국제경영 콘살턴트

본사는 LOGO 현상모집에 성의있게 응모하여 주신 8명의 응모자들에게 지상을 통해서 감사드리오며 철성광고의 송순태씨가 최고 득점자(353점)로 당선 되었음을 알립니다.

위의 로고는 응모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15명의 심사원들이 다음요령으로 채점하였읍니다.

①응모내용의 Professionalism, ②응모내용의 Integrity & Credibility, ③응모내용의 상징, ④친근감, ⑤예술성, ⑥응모자의 성의감

※점수는 각 항목마다 최고5점 최저 1점으로 하였음

※제출된 모든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공인회계사(C.A.)현영일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국일보

숨가빴던 大事件퍼레이드 한해를 되돌아본다

특집판

엇갈린 충격·기대

365일

本社선정 10大뉴스

國內

國內

큰사건 洪水에 멍은 들었지만 市民의 눈·소리 成熟해간 한해

60년대 모재벌의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이 터졌을때 몇달동안 신문은 그사건에 매달려 있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밀수속보를 보면서 사람들은 『6·25사변에 다음가는 뉴스랍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70년대를 넘어가며 그 밀수사건은 더욱 강도가 크고 충격적인 사건들에 의해 추월당해 빛바랜 사진첩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놀랄일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79년 朴正熙대통령의 피살소식 이후 연이어지는 격변의 시리즈。 그러한 맥락에서 「82년도」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올해의 10대뉴스를 손꼽아 보며 「퍼레이드」란는 낱말을 이리저리 되씹게된다。 「큰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신문사 데스크는 정신을 차릴사이 없이 시간에 매달려야 했다。

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이 터져 들끓는가 싶더니 宜寧참사가 발생, 세계적인 뉴스공급처가 됐으며 이어 張玲子여인시대가 열린다. 어음사기-개각-재판-금리인하-개각-實名制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사이사이 지하철붕괴사고가터져 쉴틈이 없었고 두차례나 군용기가 추락하는 불운도 겪었으며 尹景花 朴尙恩 사건에 관련된 「연쇄무죄」가 또다른 의미의 쇼크를 던져 주기도 하였다。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쉴틈은 없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극일운동이 전국을 한 화제권으로 잡았고 국회는 현안문제들로 끓탕을 계속했다。

밝은뉴스도 물론 많았다。 해방이후 줄곧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던 通禁이라는이름의 무거운짐도 벗었고 자유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中·高生의 두발, 교복자유화의 스타트도 지켜 보았다。

全斗煥대통령의 역사적인 아프리카순방외교도 올해에 있었던 뉴스였고 연말을장식한 뉴델리 아시안게임의 승전보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훈훈한 피니시블로였다고할까。

82년은 몇개의 大事件이말해주듯 사람들을 멍들게하고 지치게했던 한해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한해를 보내면서 그사건들이가져온 후유증이나 회의적인측면만을 얘기하고 있을수는 없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없는법.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판단이 있을 뿐이다. 그 평가와 판단은 어떤것들인가。

올해는 그와관련해 많은것을 우리 모두가 배웠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나 경제에 관계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엘리트만이 賢者는 아니라는 것, 밀어붙인다고 해서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철리를 일깨워주었고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배합돼가야 하느냐를 재삼 생각케 해주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 지적돼 있지 않은채 남아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다. 그들이 지니고있는 저력이다.

하마터면 국기를 흔들리게하고 안정기조를 뒤흔들 사건이 연발했지만 시민들은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생업을 소홀히하지않는 슬기를 보였다。

「유언비어」를 귀담아 들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굳함이 있었고 진위를 나름대로 소화해내는 슬기를 지녔다. 그런흐름에서 통금철폐후 보여준 시민들의 자력의지, 문화수준은 괄목할만한것이었다. 또 인권정치적인것만이 아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것을 참지못하고 싸워서 제몫을 찾아내는 시민의수가 올해따라 유난히 돋보였다。

어떻게보면 올해는 「국민의 눈」과 「국민의 소리」가 보다 성숙해있는것을 보여준 한해였다. 그래서 그「잠재력이 눈뜬 소리」를 10대뉴스위에 두고싶다。

【吳隣煥사회부장】

李·張부부 어음詐欺劇

경제지진등으로 불린 李·張부부어음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경제금융 기업의 병폐가 곪아터진 측면이 없지않다. 부부가 유통시킨 어음합계는 7천1백11억원, 사기액수 1천8백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이사건에 관련, 31명이 구속됐다가 1·2심을 통해 18명이 벌금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았다. 법무장관이 2번이나 바뀌고 검찰총장이 경질되는등 정치적 시련을 겪었고 實名制파동으로 연결되었다.

두차례 國務總理경질

금년 한해는 사건도 많았지만 이에 따른 引責改閣도 어느 해보다 많아 모두6차례에 걸쳐 내각이 개편됐다. 年初에 단행된 1·3改閣으로 劉彰順내각이 등장했으며 4월28일에는 宜寧사건등으로 내무장관을 引責경질하는 부분改閣이 단행됐다. 또 5월21일에는 李·張어음사기사건수습을 위해 11명의 각료를 바꾸는 대폭改閣이 단행됐고 6월24일에는 추가引責改閣으로 金相浹내각이 출범했다.

宜寧서 巡警총기亂動

4월26일하오9시30분부터 5시간10분동안 경남宜寧郡 宮柳面에서는 宮柳지서 禹範坤순경 (27) 이 빗속을 누비며 56명의 양민을 무차별 사살하고 자신도 폭사했다. 국내외에 큰 충격을 가져온 이사건으로 사태를 막지못한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제도적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노출돼 정부는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4명의 경찰관을 구속하면서 유족에대한 최대한의 보상등 사태수습에전력을기울였다. 경찰은 처우개선 행정개혁을 추진중이다.

7·3조치、實名制파동

5월에 있었던 李·張부부거액어음부도사건의 충격처방으로 나온 7·3조치에 대해 사회정의를 앞세운 명분론자 실리를 앞세운 현실론이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발표한달후 알맹이가 빠진 보완책이나왔으나 은행예금이 빠져나가고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하는등 실물경제의 흐름이 심상치않은 조짐을 보였다. 결국 民正黨의 주장에의해 정치적 결단이 내려져 실명거래제는 86년이후로 후퇴했다.

美國문화원 放火사건

3월18일하오2시2분 대낮에 釜山中區 大廳洞 도심에 자리잡은 美문화원 1층현관에서 휘발유로 불을질러 1명이 숨지고 1층이 전소됐다. 12일만에 해결된 이사건은 주범文富軾 (24) 등 高神大생을 중심으로한 좌경대학생서클 8명의 소행으로 밝혀져 대학생의 분별없고 과격적인행동 이파문을 일으켰다. 배후조종자로 光州사태주동자 金鉉獎 (32) 과 原州교구의 崔基植신부 (42) 가드러나 실정법과교회법이 상충되는 대소란을 빚기도했다.

아시안게임 3위凱旋

뉴델리 제9회 아시안게임 (11월19~12월4일)에서 한국은 북한·印度를 뿌리치고 金메달 28개로 종합3위를 차지, 아시아 스포츠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남북대결서도 완승했다.

한국은 20개종목에 출전, 18개 종목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특히 金梁坤의 마라톤우승, 崔允喜·允熙자매의 여자수영3종목석권, 복싱7체급 우승, 남자농구우승등 뜻밖의 대성과로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全대통령 阿洲·加순방

全斗煥대통령은 8월16일부터 16泊17일간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를 방문, 새로운 韓阿시대의 幕을 열었다.

全대통령의 아프리카巡訪은 우리나라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또 우리외교의 多邊化라는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全대통령은 순방기간중 南南협력을 내용으로한 開發전선을 선언, 제3세계에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通禁해제·校服자율화

세배가 한창이던 정월초하룻날 全斗煥대통령은 1월5일부터 통금해제등발표, 신년의 경축무드를고조시켰다. 접적지와 해안선을 낀 52郡2백92개邑面의 일부지역이 제외됐지만 37년간 밤을 묶어놓았던 통금이 해제됨으로써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측면에서 새로운생활 패턴이 이루어지고 큰 활력을 불어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와함께 중고생 교복과 두발자유화는 환영을 받는 이면에 교외지도와 교복의 사치성향등문제가부각되고있다.

高淑鍾·鄭載巴등 無罪

尹景和씨 피살사건의 高淑鍾씨 (46) 와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군 (22) 에대한 1·2심의 잇달은무죄선고로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은실로 중대한국면을맞았다.

「무죄퍼레이드」란 말이 나올만큼 최근 법원이 엄격한 증거요건의 강화로 증거재판주의의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인권보호라는 긍정적평가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론에 밀리고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日本교과서 歪曲파동

지난 7월에 일어났던 일본역사교과서왜곡波動은 우리국민의 對日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켜 韓日양국의 현안이었던 經協협상을 중단시켰을뿐아니라 급기야 反日운동을 낳기에 이르렀다。 한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3·1독립운동을 폭동으로 史實을 왜곡한 일본정부는 국내외의 반론에 부닥쳐 시정을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경계하자는 뜻에서 독립기념관건립을위해 아직도 성금을 내고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91>

부드러운 겨울 ⑰

「일이란 묘한 거여서 착쥐야할 일보다 돼도 그만 이제도 그만인 일이 잘된다말야. 서류 이리 주고 너 할일 보면.」

「왜 그렇게 좋으려고만그러세요. 차라도 한잔 같이하자면 어때서?」

「그래, 코피 마실래?」

즉시 인터폰을 들려는 수철이를 말릴렴해서 수지는 발딱 일어섰다.

「아녜요. 어디 조용한 다방에서 얘기좀 하고싶었는데 바쁘면 그만 두세요.」

「너하고 얘기도 못하게 바쁠 것도 없다만 조용하기론 여기가 다방보다 훨씬 낫지. 안그러냐?」

「분위기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선 왠지 돈벌이와 상관없는 얘기는 될것 같지가 안네요」

「그렇지도 않아. 가끔 와 부다방에다 마담이 직접 나라오도록 차를 시켜놓고, 마담 입심에 따라서는 바쁜 시간을 동어서 삼십여분이나 음담패설에 할애하는 적도 있단다. 스트레스해소엔 뭐니뭐니해도 음담패설이 제일이거든」

「그러니까 입으로 외도를 한다 이말씀인가요?」

「애는 숙녀답지못하게 무슨말을 그렇게 추접하게하냐? 혹시 너 느이 올케한데 고자질할거없을까 날떠보는거 아니냐? 여자는 상대가 누구건간에 말조심이 제일인데, 더욱이 돈건 아예 상종을 안하는거고」

수철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수지를 따라 일어설 채비를했다. 책상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외국의 경제지, 상품리스트, 영자신문, 무역세법등의 법규집을 한편으로 주섬주섬 챙기고, 여직원을 불러 중요한 전화가 올 거래선과 연락처를 알렸다.

기껏 삼십분을 자리비우기 위해 지나치게 법석을 떠는 게 아니꼬와 수지는 얼굴을 비쭉대며 말했다.

「아닌게 아니라 커피센으로 여고사는 사무실에 와 앉았으니까 나도 생각이 이상해지는데. 옴케어니한데 파바치고 구전 먹을 건수 없을까하고…」

「참, 이 중흥노무자 여권 나오기전에 너 커미션부터 챙겨야한다. 동정은 동정이고 셈은 셈이니까。그러고 셈을 제대로 처받면 일이 이렇게 수월하게 좋아. 알았지? 나도 이런 섭섭된 걸 내색하지 않는게 구질구질한 일에 나서보긴 처음이다만. 마침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우연히 만난 잘 아는 인사책임자가 내가 그 말을 꺼내자 반색을 하지뭐냐? 글쎄 몇달을 두고 교제를 트고 좋을 보내달라고 따라다니던 노후자가 있었는데 겨우 자리를 마련해놓으니까 집안에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됐으니 그 자리에 접싸게 밀어넣어 놓겠다는거야. 하긴 뭐 제까짓게 아니더라도 노무자 하나쯤 중동보낼 연줄이야 쌔고 쌨지만 말야. 축기수입도 하다보니 그 바닥이야 훤하잖니. 그렇긴해도 처음으로 말을 건네자마자 되니까 기분 좋더라. 아다리 맞으려니까 그렇게되더라구。아무튼 그 사람 누군지 운수 뻗쳤다。커미션 아까와할거 없다구 해. 몸에 진이 조금도 안빠지구 되기가 쉽지않는거니 알만한 친군가 몰라? 그 사람」

수철은 수지와 함께 건너편 빌딩 지하다방으로 내려가는 동안 줄창 혼자서 이렇게 지껄였다. 수지는 커미션 얘기가 나올때부터 그 사람이 누구란는걸 소리없이 외치고싶어 가슴이 울렁거리고 목이 탔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742-7010
런던제일교회	안병한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1시30분 금요기도회 오후8시	135 BRISCOE ST. E.	(519) 439-6331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 오후2시 오후4시30분, 금요기도 밤9시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후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중앙한인연합교회	김택규	주일낮 12:30	393 SHERBOURN ST	922-3863 922-0605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김재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한인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00 주일예배 2:00 주일성경 1: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오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황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현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한인교회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1:30	69 WILLIAM ST. WESTON	243-9543(교 743-8082(사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 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한국일보 (특집판)

戰爭과 平和의 大파노라마…한해를 되돌아 본다

本社선정 10大뉴스 國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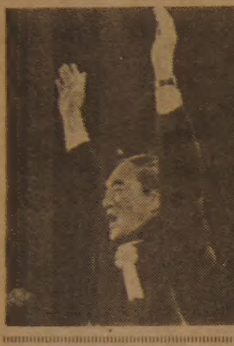
1982년 激浪의 地球村

英·아르헨 포클랜드戰

영국과 아르헨티나사이에 근 1백50년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어온 포클랜드(말비나스)를 아르헨티나가 4월2일 점령함으로써 양국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미국의 중재를 무시한채 계속되다가 쌍방에 많은 피해를 내고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전쟁은 나토와 美洲기구의대결, 과거 제국주의세력對 식민지의대결로도 해석되었으며 미국의 신뢰도에 손상을주었는가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패전의책임이 거론되어 정권이교체되었다.

日 나까소네政權 탄생



스즈끼·젠꼬(鈴木善幸)가 집권 2년3개월만인 10월12일 수상직에서 돌연 자진퇴진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적인 경단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人脈과 金脈으로 迷宮을 이룬 일본정치의 한단면을 노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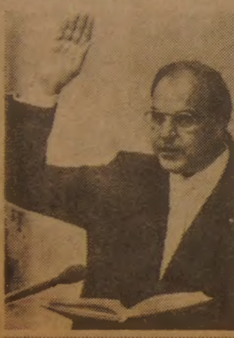
스즈끼의 후임으로 수상이된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는 극우보수파로 방위비증가등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代父格인 다나까(田中)의 록히드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을경우 격동을 [illegible] 것같다.

美 對蘇禁輸조치 해제

레이건美대통령은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사망한 3일만인 11월13일 폴란드의 군사통치이후 실시됐던 對蘇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서구동맹국들에게 요구했던 시베리아가스관공사에 필요한 美 건설장비수출규제를 전면해제하는등 광범위한 새東西무역정책을 선언했다.

미행정부의 시베리아가스관건설공사용 미국장비의 對蘇금수조치를 놓고 작년12월이후 계속되어 오던 미국과 서구동맹국과의 마찰은 해소됐다.

西獨 콜保守政權 등장



10월1일 西獨하원은 헬무트·슈미트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 제6대수상에 헬무트·콜基督民主黨당수를 선출했다. 따라서 서독에는 社民黨중심의 左派정권이 붕괴되고 基民 基社 自民黨연합의 새로운 중도정권이등장, 13년만에 保守회귀가 이뤄졌다. 이번처럼 의회내에 절대다수당이없는 상태에서 自民黨이 임의로 聯政상대를 바꿈으로써 현직수상이 불신임결의로 물러나고 총선없이 새수상이 들어선것은 서독헌정사상 33년만에 처음이다.

브死亡·안드로포프執權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겸 간부회의장이 11월10일 75세를일기로 사망함으로써 18년간의집권을청산했다. 그의 사망2일만에 前KGB(비밀경찰)의장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에 선출되었다.

중공과의 대화개시, 아프간문제, 폴란드문제 등 브레즈네프가 남긴 유산속에 출범한 안드로포프체제는 국내적으로는 경제문제해결, 국제적으로는 東西데탕트의 부활이 기대되고있다.

中共 12全代·헌법개정

中共黨은 9월1일 제12기黨전국대표대회(12全大會)를 열고 黨61년사상 최대규모의 지도부개편과 새 당헌을 채택하는등 기구를 정비했다.

중공전역에서 약1천6백명의 대표들이 참가, 胡耀邦을 총서기로 선출하여 鄧小平체제를 확립함으로써 故毛澤東잔재를 청산했다. 또한 실용주의경제노선을 선언하는가하면 ▲1人통치금지·집단지도체제채택 ▲개인숭배금지등을 골자로하는 새당헌을 채택했다.

스페인 左派 정부수립

10월28일 실시된 스페인총선결과 43년만에 스페인에 左派정권이 들어섰다. 펠리페·곤잘레스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3백50석의 하원의석중 과반수가 넘는 2백석을 획득, 제1당이 됨으로써 36~39년내전이래 처음으로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는 충격파를 던졌다.

이로써 프랑코집권후 43년간 지속돼온 극우보수세력의 권력독점은 일단 막을 내렸다. 곤잘레스 수상이 과연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것인가 앞날이 주목된다.

「이」레바논침공·大虐殺

이스라엘은 6월6일 PLO대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전면침공, PLO와 시리아를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벌인끝에PLO를 레바논으로부터 철수시켰다.

PLO가 철수한 후 사브라와 샤틸라 두 팔레스타인난민촌에 레바논의 기독교민병대원들이 난입, 1천8백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세기의 대학살」은 베긴정부가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으며 현재 3人査問委가 구성되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폴란드 자유勞組 해체

폴란드의회는 10월8일 자유노조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함으로써 자유노조는 탄생26개월만에 해체되었다.

군사정부가 계엄을 선포한 지 10개월만에 취해진 조치로 폴란드인들은 자유화운동의 한 軸을 잃었고 그후로는 가톨릭교회가 국민감정의 균형을 지켜주고있다.

군사정부는 그후 對국민 유화조치로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를 석방했으며 12월13일로 만1년이 되는 계엄통치의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

이란·이라크 擴戰一路

이란군은 5월24일 이란제2의 항구도시 호람샤르를 전쟁발발5백78일만에 탈환하는데 성공, 이란·이라크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란군은 계속 승세를 몰아 8만병력을 이라크국경지대에 집결시킨후 7월14일에 이라크영내에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 이라크의 바스라지역으로 20km까지 진격하는등 확전으로 치달았다. 쌍방간에 엄청난 인명및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있다.

國際

난민촌 大虐殺…끔찍한 새教訓
紛爭러시속 民族의 離合集散

해가 바뀔때마다 온인류는 「平和와 보다 복된 삶」을 소망해왔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경쟁을 계속하는限 분쟁과 전쟁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史家들의 주장탓이었을까 82년의 한해도 세계곳곳에서는 싸움이 그칠줄을 몰랐다.

그중에서도 中東戰禍의 焦點이었던 레바논사태는 이해에 가장 관심과 눈길을 모았던 慘禍, 그래서 82국제뉴스의 으뜸을 차지했다.

그외에도 수렁에빠진 세계경제, 그때문에 서방선진국에 까지 심각히 확대된 失業率이 있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經濟戰, 또 美·蘇강대국들에 의해 協商의 간판뒤에서 지속적으로이뤄진 군비경쟁, 예년에 볼수없었던 새지도자들의 탄생, 거대한 대륙에 10억인구를안고있는 中共의 進路개혁, 超정밀의컴퓨터개발에이어 끝내는 인공심장까지등장했는가하면 한국에서도 시험관아기가 탄생하기에이른 과학개발, 폴란드와 아프간사태를 끝맺지 못한 것등등.

1년 열두달의 사건스크랩을 들추면서 82년의 해외뉴스를 열가지만골라볼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보는 것은 그만큼 지난1년이 안팎으로 多事多難했기 때문이다.

10대뉴스圈 밖으로 밀려난 굵직한 사건들을 보자.

비록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美·蘇의 전략무기감축협상개시, 헤이그의 갑작스런辭任과 슐츠의등장, 뉴델리에서의 南北회의, 4년만에맞본 월드컵熱氣, 美중간선거실시와 레이건의 退潮, 1월의 美·유럽大한파, 일본·미국에서의 비행기 추락참사등 그때그때 세계의눈들이 쏠렸던 뉴스가 수없이 터져 나왔다.

「82년의전쟁」하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으로 세작된 레바논사태를 꼽아야하는것. 그것은 특히 9월의 西베이루트 난민촌 대학살 사건때 1천8백여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되면서 현대의 인간성과 윤리를 새삼스럽게 熟考해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그밖에도 있었다. 이란의 호람샤르(이라크)탈환으로 한층격렬해진 이란-이라크戰, 2년여를 끌어온 이 싸움은 지금도그칠줄모른다. 또 1백50년의 해묵은소유권주장끝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번졌던 포클랜드사태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때마다 세계는 강대국과 강대국끼리, 또 민족은 민족끼리 서로의 이해를 따지면서 엉켰다 떨어졌다하는 離合集散현상이 수시로 일어나야만했다.

지난한해동안 등장한 새指導者들 또한 하나 둘이 아니었다.

우선 브레즈네프의 사망으로 실권을잡은 안드로포프가 대표적이라면 집권13년만에 붕괴된 슈미트의 社民黨에이은 基民黨보수정권의 헬무트·콜(西獨), 43년만에 大權을 쥐게된 스페인 社會勞動黨의 곤잘레스, 일본의 나까소네(中曽根), 할리드의사망으로 사우디국왕이된 파하드, 또새모습으로 바뀐 중공의 지도부등을 빠뜨릴수없다.

지난12월초의 全人代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채택한 중공이 「不反不親」의 美·蘇등거리외교를선언하면서공산주의속의 民主化를 里程標로설정한것또한 앞으로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정세에 변화를 가져올것이라는 전망을가능케 해준다.

소련이 눈에띄게 아시아에 군사력을 증강한것이 82년이었다면 그에맞서 戰略의 개념을 바꿔가며 서로가 고성능의 무기를개발해온것도 82년의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일수있다.

超현대의 과학기술 개발이란驚異뒤에는 전세계에 심각히파급된 경기침체, 人權존엄의상실, 그칠줄 모르는 內紛과 戰爭, 그래서 지난1년도 인류는 갈등과 고통속에서 방황해야만했던 한해가 아니었나싶다.

【金湧精외신부장】

海洋法협상 9년만에 妥結
1백18개국이 調印, 1年후에 發效

【몬테고베이(자메이카)AP聯=聯】유엔해양법회의참석1백30여개국들중 1백18개국과 나미비아·쿠크군도가 해양법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세계외교사상 가장 길고도 복잡한 9년간의 협상이 [illegible]됐다.

해양개발과 자원의 사용을 규정한 1백91페이지의 이조약은 지난73년12월부터 [illegible]이 시작되어 금년4월30일의 해양법회의에서 찬130, 반4, 기권17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되었으며 이번 자메이카 해양법회의에서 조인된 것이다.

미국·영국·서독·이탈리아·벨기에등 22개국은 이조약의 해상[illegible]채굴에관한 조항들이 구속적이고 민간[illegible]의 [illegible]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앞으로 결성된 국제海床機構가 선진공업국들로 하여금 해상광물채굴에 있어서의 특허기술의 이전을 요구한다는것이라는 이유로 이조약에 조인하기를 거부했다.

일본은 이 조약에 조인하기를 거부했으나 추후에 조인할것임을 시사했다. 비조인국들은 앞으로 2년안에입장을 재고, 조인할수있다.

이 조약은 60개국 이상이 조인한뒤 12개월후 발효된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주요 서방선진공업국들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조약에 조인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 조약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으며 만약이 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될때까지 이들 非조인국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경우 법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약이 이날 60개국이상에 의해 조인됨에 따라 입체의 해상광물채굴활동을 감시할 國際海床機構를 설치하고 해상개발법을 작성할 준비위원회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오는83년3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美, 英에 豫備司설치

【워싱턴·브뤼셀AP·UPI=聯合】미국은 현재 서독의 슈투트가르트에있는 유럽주둔미군사령부와 별도로 영국에 예비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미국방성관리들이 10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미정부가 서독 슈투트가르트근교의 미군사령부를 앞으로4년내에 영국으로 영구히 이전할 계획이라는 영국가디언紙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보도내용은 「부정확한것」이라고 말했다.

中共 신임副外相에 姚廣 駐佛대사任命

【北京AP=聯合】駐프랑스대사로 2년6개월간 봉직한姚廣이 중공부외상에 임명됐음이 10일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에 의해 밝혀졌다.

姚는 중공외무성에서 서구문제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姚의 부외상임명은 지난달 黃華의 뒤를이어 외상으로승진한 吳學謙 前제1부외상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것으로보인다.

美, 對폴란드制裁 철회宣言
레이건 政治犯석방등 前提

【워싱턴聯·AP=聯合】레이건대통령은 10일 폴란드정부가 [illegible] 해제하고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교회및 자유노조와의 대[illegible] 방법으로 [illegible] 중시한 경우 미국이 그간 취해온 [illegible] 정치,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미국은 『탄압수단을 바꾸거나 아니면 [illegible] 폴란드의 현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못할 단순한 구두약속이나 의미없는 조치에는 흥미를 갖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폴란드정부가 확고한 자유화조치를 취할경우 워싱턴이 2차대전후 유럽의 재건을 지원했을 당시와 같은 적극적인 경제지원등을 종합한 『의미심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에 응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人體內유전인자 活性化성공
美, 존스·홉킨스醫大 연구팀

【보스턴聯=聯】5-아자시티딘이라는 실험용약을 사용,사상 최초로인체내유전인자를 활성화 시키는데성공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의과대학연구진이 9일 발표했다.

동대학 연구진은 겸상적혈구 빈혈을 앓고있는 한 어린환자를 치료하면서 5-아자시티딘을 이용, [illegible]유전인자를 [illegible] 글로빈을 생산케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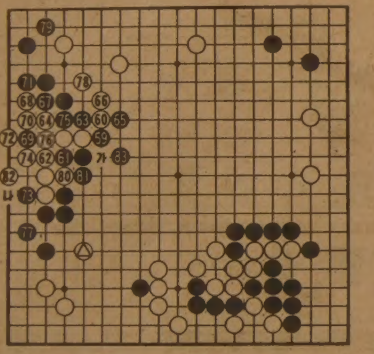
한편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도 지중해성빈혈을 앓고있는 한 남자환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동연구소는 이같은 성공은 [illegible]의 분자조작을 통해 유전인자의 활동을 임상학적으로 조작시킬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상 최초의 고무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6譜 59~83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 奉 洙 〈천판〉
黑(7段) 盧 永 夏 〈1敗〉



黑, 成果없는 攻擊

徐7단은 黑의 맹공을 받고서도 여유만만하게 응전하고 있었다. △표자리를 선착한데서 白의 우세가 두드러졌고 좌변 白은 「쌈지」를 뜨며 살아야 하겠지만 원래 黑의실리가 예상되던 곳인때문에 黑이 손해이지 白은손해될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때문이다.

우선 黑59에 대한 白60이 강수. 일부러 黑63을 두게하고 白65로써 제자리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黑은 65가 약간의 이론을빚어냈다. 『이런곳은 66쪽에서 단수할수도 있으므로 보류한채 「가」의곳을 가만히 있는것이 옳았다』

黑69가 좋은수순. 徐『쌈지, 쌈지…』 盧『엄살, 엄살…』 白72까지 어쩌지못할 외곬길인듯, 삽시간에 진행되었다.

白72에서 계속 74에 물아둔수가 완착이었다. 이수는 직접82라야 正手. 그랬더라면 黑77까지 되었을때 白74대신 「나」로 응하게되어 이쪽黑의근거에 적잖은영향을줄수있었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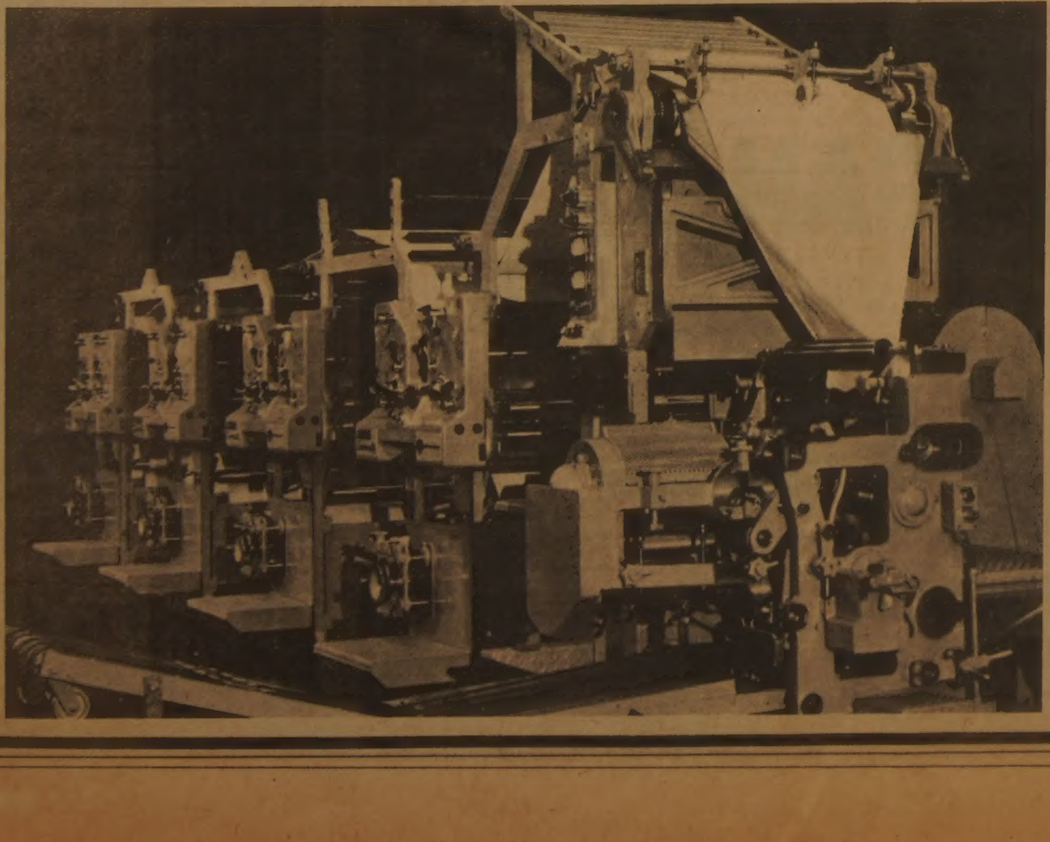
徐『죽일수도 없고』 盧『잡을 수도 없고』 진담도같고 농담도같은 대화가 가볍게오가는동안 黑83까지 피를보지 않고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결과는黑이 별무소득, 공격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중론이다.

그렇다면 黑은 여전히 열세를 만회치 못하고있는 셈인데 과연 어찌될는지.

【一凡】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We Will Print Your

NEWSPAPER & AD.FLYERS

FOR
PREMIUM QUALITY
LOW PRICE
PROMPTNESS
PERSONAL SERVICE
GIVE US A CALL TODAY.

K.T.PUBLISHING
1025 DUPONT ST. TOR.
533-2361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퇴폐理髮舘 단속根據마련

理美容師法 곧개정 "칸막이·密室금지·위반땐폐쇄"

말썽많은 퇴폐이발소에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된다. 보사부는 11일 갈수록 번지고 있는 이용업소의 과잉서비스 등 음란·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밀실또는 칸막이, 커튼등 퇴폐의 계기가 되는 일체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하고 실내조명도 항상 1백룩스이상을유지하고 이를 위반, 음란·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장폐쇄를 명할수 있게하는 처벌규정을 마련,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현행 이미용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넘겼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명령으로 폐쇄된 이미용업소의 업주는 1년간 재개업할 수 없으며 또 폐쇄당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1년동안 할수없게하는 조항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발소의 퇴폐영업행위가 다시 번지기 시작한것은 지난해4월 행정간소화 방침에 따라 이발소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뒤 손님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서울의경우 80년말 4천5백92개이던 업소수가 11월말현재 5천1백여군데로 늘어났으며 이중10%이상이 퇴폐업소인 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런데 지난2일 개정된 미용사법시행규칙은 「웨이브틀으로 구획하는경우 의자3대이상을 단위로하여 의자의 4면중 1면을 개방하고구획할수있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칸막이커튼과 밀실설치를 사실상 허용해왔다.

그러나 퇴폐행위처벌에 있어서는 현장적발이 어려울뿐 아니라 구체적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경우 지난 한해동안 의료법, 윤락행위방지법, 이미용업법등을 적용, 모두 1천5백17업소를, 올해상반기중 4백개업소를 적발했으나 종국 처분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빚었고 오히려 일부업주가 폐쇄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내서 승소하는 경우까지 생겼었다.

蔚山 潤月寺 보물 석조여래좌상 머리부문 盜難

【蔚山】 11일 새벽2시에서 6시사이에경남蔚州郡上北面 登億里산139 潤月寺 대웅전안에 안치되어있던 보물3 70호인 석조여래좌상(높이 1m30·폭1m)의 머리부분이 도난당했다.

이절의 주지인 박하순씨(50)에 따르면 11일새벽2시께 예불을 마치고 잠을잔후 새벽6시께 다시 새벽예불을 하기위해 법당안에 들어갔을때 도난당한것을 발견했다는것.

이 석조여래좌상은 신라진덕여왕때 자장율사가 이절을 건립하면서 만든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머리부분이 곱슬머리로 되어있고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무릎까지 U형의 법의까지 섬세하게 조각된 희귀한 문화재로 문화공보부가 지난60년12월7일북보로지정보존해오고있었다.

한편 신고를받은 蔚山경찰서는 일제때 이석불을 절박으로 운반하려다가 길이35cm가량의 머리부분이떨어져 강석을이다듬어놓은것을 범인들이 알고 훔쳐간것으로보고 문화재에 정통한 도굴꾼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蔚山】

靑少年탈선행위 團束

치안본부、年末年始맞아

치안본부는 11일부터 내년1월4일까지 25일동안을 연말연시 청소년풍기순화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 경찰서별로 경찰과 학교교사등 유관기관직원들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 지도토록하고 청소년들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보낼수있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꾸중맞은 船員난동 동료 1명刺殺

【濟州】 10일 하오8시30분께 北濟州郡翰林邑 비안도북서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제22대명호(8톤) 선원 박성원씨(29·전남寶城郡鳥城面大谷里931)가 선장으로부터 일을 못한다고 꾸중을 듣자 화김에 술을 마시고 갑판위에서 일을하던 동료선원 하제호(40·경남巨濟郡巨濟面玉山里75) 김석조(47·부산西區南富民洞461) 김북태씨(26·전남麗川郡華井面狼島里342)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이중 하씨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두김씨는 제주시내병원으로옮겨입원치료를받고있으나중태다. 【船】

택시가 自轉車받아 1명死亡 2명부상

【釜山】 10일하오6시5분께 경남密陽郡初月面新湖里 앞 국도에서 무안택시소속 경남1바6651호 택시(운전사 손종헌 44·密陽郡武安面武安里827)가 자전거를 타고가던 김종석씨(50·密陽郡下南邑守山里)를 들이받아 숨지게하고 택시는 길옆2m아래 하수구로 굴러 택시가 대파되면서 승객 손차숙씨(22·주거미상)와 운전사 손씨가 중경상을 입었다. 【船】

豫備軍훈련 不参 棋士 姜勳씨구속

서울冠岳경찰서는 11일 프로바둑기사 姜勳씨(25·서울冠岳區新林9洞251)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프로4단인 姜씨는 지난 80년 7월부터 지난9월까지 모두 11회에걸쳐 이유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않았다는것이다.

픽업트럭 行人받아 2명死亡 1명부상

【大邱】 10일하오8시40분께 경북義城郡義城邑五老2洞국도상에서 경북다 9825호 포니 픽업(운전사박기태·26·경북義城郡義城邑李竹洞459)이 운전부주의로 길을 걷고있던 김타관씨(40·여·義城郡義城邑道東洞86)와 동네에사는 오지혜양(2)등 2명을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하고 같이가던 오양의 어머니 김글란씨(27)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船】

高陽홀트學校 어제 준공식

李順子여사 참석 어린이들에 膳物도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1일 상오 홀트아동복지회(이사장張承台)가 京畿道高陽郡德耳里에 지은 홀트학교와 생활관(교회겸용)의 준공식에 참석, 金正禮보사부장관, 버다·홀트여사(법인설립자 미망인)등 관계자들과 준공테이프를 끊고 신축건물의 내부시설들을 둘러본뒤 수용아동들에게 선물을 주고 격려했다.

연건평 4백여평에 국내독지가및 해외양부모의 기부금 총3억8천여만원으로 지은 이 학교는 14개 교실과 물리치료실등을 갖추고있으며 수용중인 정신박약아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픔잊고「敎師의꿈」키워

宜寧사건때 父母·형제 6식구 잃은 朴鎭淑양

"어린이들을 착하고 바르게 가르칠래요" 서울 큰집서 學業열중… 태권도 배워

◇朴鎭淑양이 큰어머니 金順任씨와함께 宜寧사건기사가 실린 당시의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다。朴양은 이제 슬픔을 잊고 자신의 꿈을 확실히 키워가고 있다。

朴鎭淑양(18·서울M여고3년)에게는 82년이 「생애최악의 해」였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을딛고 대지위에 우뚝섰다. 아픈상처를 애써 잊으며 태권도까지 익히는 그녀는 교사가 될 소녀의 꿈을 착실히 키워가고 있다. 앞으로의 삶이 최고의것이 되기를 그녀는 열망한다.

그것이 그녀가 宜寧참사때 잃은 부모와 형제등 6식구를 생각하는 최선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고향의 사건소식을 들은 것은 4월27일 상오 7시께. 그녀는 부산에서 大宇실업방직공장에 다니면서 경남여상에 재학중이었다.

海雲臺區 盤如洞 자취방에서 라디오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집은 괜찮겠지…」하고 생각했던 마음씨고운 소녀였다. 회사에 출근한뒤 그녀는 뉴스상보에서 宜寧우체국에 교환수로 근무하는 언니 鎭淑양(20)이 변을당한 사실을 알았다. 朴양은 회사에 조퇴를 신청, 곧바로 고향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朴仁吉씨(43)와 어머니 裵貞汝씨(42), 그리고 4형제등 6명이 모두 희생돼 있었다.

소녀는 때없이 주저앉아 잠시 정신을 잃었다. 서울서 달려온 큰아버지 朴尙圭씨(46)등 친척들에 이끌려 감당하기 힘든 상주가돼 삼우제까지 치르고 큰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왔다.

서울 큰아버지 집으로온 朴양은 한동안 슬픔에 젖어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마냥 그런 생활을 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6월에는 큰아버지의 주선으로 M여고에 편입, 학업에 열중하면서 마음의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큰 어머니 金順任씨(46)도 朴양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朴양의 생일이었던 지난 8월16일에는 학교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열어주기도했다.

이러한 주위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무엇보다 쾌활한 朴양의 성격이 슬픔을 잊는데 큰 도움이 됐다.

요즘은 태권도까지 배우며 밝게 살아가고 있다.

여름방학때는 고향에 들아가 가족들의 묘소에 다녀왔고 지난추석등 4번이나 성묘를 갔다왔다.

朴양이 자신을 회복했다는 증거다.

큰 아버지 朴씨도 『워낙 명랑한 성격이어서 그런모양이다』면서 퍽 다행스러워 한다.

朴양이 받은 보상금은 모두 1억2천만원으로 宜寧사고의 유가족전체에 대한 보상금 12억1천만원의 10%정도. 이돈은 현재 朴양과 큰아버지, 宮柳면장등의 공동명의로 예금돼있는데 朴양이 공부를 끝내고 성인이 되면 가족묘과 상의 자립기금으로 쓸계획이다.

장래의 꿈을 묻는 기자에게 朴양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아저씨 나는 커서 국민학교 선생이되고파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이세상에서 죄와 불행과고통같은 것이 사라질것이란 생각이들기때문이에요』

【金宗來기자】

오늘、추운 休日

14일까지 계속 大邱 영하4度

10일밤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린데이어 11일 하오부터는 기온이 뚝떨어져 일요일인 12일에는 서울지방의아침 최고기온이 영하6도까지 내려가는등 전국적으로 추운 휴일이 되겠다고 중앙기상대가 예보했다.

기상대는 10일하오부터 전국에 눈비를 뿌렸던 날씨가 11일 낮부터 맑아지면서 몽고지방에서 발달한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12일아침 春川지방의최저기온이 영하8도, 大田은 영하7도, 서울영하6도, 大邱는영하4도까지 내려가겠다고말하고 이번추위는 오는 14일께까지 계속될것으로 내다봤다. 기상대는 또 고압선 발고사가 실시되는 16일께는 비나눈이 내리고 다시추운날씨가 되겠다고 밝혔다.

「기적의아기」에 誠金

匿名의 將校가

淸州湖 버스참사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국교생으로성장한 鄭明淑양(12·寶城국교6년)에 관한기사(본보 9일자11면)를 읽은 익명의대령(국방부)이 11일 鄭양에게 전해달라며 성금5만원과 함께 크리스머스 카드를 본사에 맡겼다.

醫藥분업 추진小委 來21일 첫모임

의약분업형태를 결정짓기 위한의약분업추진소위원회가 11일 구성돼 오는21일 첫모임을갖는다. 이 소위원회는 의·약사단체대표 한계인사등 8명으로 구성돼있는데지난8일 의약분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4가지방안을바탕으로 의약분업형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遠洋漁船 대진7號 被拉 "不法조업" 모리타니아에

아프리카서부대서양에서조업중이던 大林수산소속 대진7호(선장 金鍾相)가 모리타니 領海안에서 불법조업혐의로 모리타니 해안경비대에 나포됐다고 현지공관이10일하오 외무부에보고해왔다.

이보고에 의하면 대진7호는 모리타니 북쪽영해에서 조업하다 나포돼 누아디브港에 예인됐으며 나포당시 32명의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외무부는 현지공관을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한편 나포된 선원과 어선의 조속한 귀환을 교섭중이다.

漁船 침몰 船長등 5명失踪

【麗水】 11일새벽2시30분께 전남麗川郡三山面巨文島서쪽 6마일해상에서 부산선적 317용성호(99·6톤·선장 고선근)가 심한풍랑으로 침몰했다.

이사고로 선장 고씨등 5명은 실종되고 선원金相培씨(24·경남巨濟郡東部面五松里113)등 5명은 麗川郡三山面西島里로 헤엄쳐나와 주민들에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의식을잃은채 中春國씨(32)집에서 응급가료중이다.

한편 麗水해경은 실종자를 수색하고있다. 【船】

西海남부 暴風 주의보

섬住民 5千명 발묶여 船舶 7백50여척도

【木浦·麗水·浦項】 11일 상오 8시를기해 서해남부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돼 이일대 해상교통이 모두 끊겼다.

이에따라 木浦항에는 여객선 40여척을비롯 3백여척의 각종 선박이 발이묶여있고 黑山島등 도서지방 여객 珍島에서는 2백여척의 어선들이 피항하고있다.

木浦항에는 淸州 荷島 黑山島방면등으로갈 5천여명의 여객들이 발이묶여있다.

또 麗水지방에는 12개항로 14척의 여객선등 2백50여척의 각종 선박들이 발이 묶여 1천여명의 섬주민들이 육지왕래를 하지못하고있다.

한편 울릉도에서 추민및관광객 2백50여명을 태우고상오 9시에 浦項으로 오려던 청기여객선 한일3호가 폭풍주의보로인해 출항이 금지됐고 청룡호도 浦項항에서 출항을 못해 발이 묶여있다. 【船】

前 유봉女中교장 공금횡령혐의 구속

【春川】 春川지검은 10일 전유봉여중교장김영환씨(50)를 업무상횡령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김씨는 81년 3월2일부터 지난9월17일까지 春川에있는 유봉여중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거둔 학력제고용시험지대금 2백13만1천7백여원을 은행에 예치시킨후 이중 1백23만9천여원을 인출, 생활비로 유용했다는것.

또 김씨는 지난 4월부터 6월사이 전준범씨등 학부모들로부터 이학교 배구육성기금등 체육성금 1백25만원을 기부받아 이를 학교공금에 입금시키지않고 유용하는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공금 9백82만4천여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10월 강원도교위로부터 파면됐다. 【船】

한꽁치 다시잡혀 注文津、매일滿船

【江陵】 2년전부터 자취를 감췄던 희귀어종 한꽁치가 최근 동해注文津항 앞바다에 대량으로 잡히고있다.

11일 注文津수협에 따르면 지난79년부터 이곳 연안에서 잡히지않던 한꽁치가 최근들어 하루평균 3만5천여마리씩잡혀2천1백여만원의어획고를올려주고있다는것이다.

이를 한꽁치는 연안4마일 이내에서잡히고있는데매일소형자망어선1백여척이출어, 만선으로 귀항하고있다. 【船】

「미꾸라지」 庶民주택 詐欺전문 李靑宰씨

8년간 16번告發당하고도 "무혐의"

소크라테스는 惡法도 法이라며 준수했다. 그러나 李靑宰씨(34·서울東大門區黑1洞184)에게는 그런 일화는 소귀에 경읽기다.

그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재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상습 반복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도 무혐의로 풀려 나오기만 하는「미꾸라지」를 잡아들이겠다고 팔소매를 걷어붙인것도 李씨같은 사람이 많기 탓이다.

李씨의 법망을 타는 곡예 솜씨는 가위 천재적이다. 최근 서울泰陵경찰서에 상습사기혐의로 구속될때까지 8년간 무려 16번이나 고소를당하면서도 한번도 처벌을 받은일 없는 관록파.

75년 서울지검 城北지청에 사기혐의로 피소된것을 비롯 北部지청 남부지청 永登浦 巖浦 泰陵경찰서등 각급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으나 번번이 「무혐의」로풀려나왔다.

그의 이같은 무혐의실력은 Y大경영학과를 졸업한 실력이 뒷받침한다. 그의 주된 사기수법은 서민들의 주택등 부동산을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치르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친뒤 유명생필품메이커에 담보로 제공, 외상으로 상품을빼내 싼값으로팔아 현금을 챙기는것.

李씨는 지난해 9월 原州에서 6명의 서민으로부터 집을 사들여 려 키、남양유업、애경유지등을 상대로 1억9천여만원어치의 상품을빼내 팔았다.

사기밑천은 맨처음 2천만원짜리 주택을살때 치른 계약금 5백만원.

그는 집을판 사람이 계약금만으론 등기이전을 해주지않을까봐 그대로 놀려먹아 살라는 선심을썼다.

李씨에게 당한 기업들은 담보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모자란 대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하지만 때늦은 행차다. 계속 놀려살라는 호의에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받고 등기이전을 해준 서민들도 뒤늦게 속은 걸 알고 경찰에 고발하지만 「민사사건으로 무혐의」란 통보에 땅을 칠뿐이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79년부터 全州 群山 原州등 지방중소도시를 돌며 3억여원을 챙겼다. 그리고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기관간부등 유지들과 가까이 내는 서울의 돈많은 사업가인양 거드름을 피웠다.

「사기-피소-무혐의-사기-피소-무혐의」로 되풀이된 그의 사기행각이 그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무능이 한몫을 거들었다. 李씨를 사기혐의로 7、8차례나 다룬 수사기관도 있었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그에게 내린 10여차례의 무혐의결정이 엉뚱하게 그의 사기행각을 돕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잡는법으로 잡아야하지 붕어잡이처럼 점잖을 빼가지고는 어려울것이다. 그교훈을 李씨케이스에서 배우자. 【姜宗泰기자】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풀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차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셈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황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루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한식, 일식 여자요리사 구함. 3년 경력
658½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7-0432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Single needle, Double needle, Serging 머신.
◉좋은 보수와 좋은 이익.신청: Irving Posluns, Div. of Dylex,
647 Lakeshore Blvd. West. 3층.
◉월-금 8:00AM~5:00Pm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861-1521, 222-3877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여자 가정교사 초빙
9, 11, 12학년 학생 가르쳐주실 여자분 선생님 원함.
전화: 694-1811, 691-8602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윈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경험있는 풀타임 요리사 구함.
낮 또는 밤. 1315 Steeles Ave.(Dixie)
Mississauga, Ont. ◉전화: 457-1900

밤12시에서 아침7시까지 일할 경험있는
가게 캐쉬어 구함.(Mac's Milk Store)
전화: 421-1089. 250 Laird Dr.(Eglinton)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성업중인 스넥-바 및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5일 영업(짧은시간)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3-4491(오후5시 이후)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Take-Out Pizza 가게. Amherstburg. Ont.(윈저 20분거리)
주매상 $3,000·렌트 $350(모든것 포함) 월·일 문닫음. 아스킹 $40,000/$27,000 전화: 1-519-736-7515 Mr. 정(오후8시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을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Canada's Wonderland 근처의 Gift Shop 매매.
아스킹: $22,900+스탁. 전화: 746-4360 Joe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1년형 GMC밴트럭 17,000Km
다크 블루, 사정상 매매코자 함.
전화 : 365-0904 Mr.안

▲FAST FOOD 비지네스.
Yonge St.에 있고, Richmond Hill 근방.
아스킹 $200,000
▲빌딩딸린 비지네스땅 $550,000
746-4360 Joe Tanzoe
Hollywood Real Estate Ltd.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주.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물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 )
G.R.Paterson Real Estate Ltd.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2 Bed Rm. 아파트 렌트
Royal York & Queen's way 근방. 월: $370
전화 : 259-1724, 251-7031

Burlington에 있는 새쇼핑 쎈타안에 있는 Space 렌트합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나 음식점 또는 딴 비지네스에 적합.
전화 : 233-6276 or 1-639-9255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윌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